

# [부록] 예술지원 정책 관련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 조사·분석

담당부서 :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Tel : 061)900-2150 | 집필자 : 한하경

- I. 개요
- II. 정책 대응 현황 및 분석
- III. 종합 시사점

# 목차

## I. 개요

1. 연구조사 진행 개요	03
가. 배경 및 필요성	03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03
다. 기대효과	03

## II. 정책 대응 현황 및 분석

1. 전 세계 주요 대응 현황	04
가. 위기·변화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 방향 수립	04
나. 코로나19 대응 주요 대응체계	13
2.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공공·민간)	18
가. [지원금] 예술가·단체 지원 정책	18
나. [시설 가이드] 시설 운영 및 재개관 지원 정책	22
다. [신규 사업] 대안적 신규 예술지원 정책(예술과 기술 등)	34
라. [네트워크] 상호소통 및 협력 강화 지원 정책	47
마. [정책 분석·평가] 설문 및 연구·조사 활동	50
바. [정책 공유·확산] 예술의 중요성 및 역할 관련 인식 확산 캠페인	61

### III. 종합 시사점

1. 주요 특징 및 차별점	72
가. C19 확산 이후 기간별(단·중장기) 대응책 마련	72
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노력	73
다. 중앙정부 주도의 위기대응 협력 네트워크 체계 운영	73
라.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대응 가이드 마련	73
마.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체질개선 및 차세대 수요 대응	74
2. 결론	75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C19 대응가이드 및 지원책 마련 강화	75
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 확산 필요	75
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C19 대응 컨트롤타워 수립 필요	76
라.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대응 가이드 수립 필요	76
마.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예술정책 외연 확대 필요	77
참고문헌	78
[부록] 해외 예술지원기관의 C19 대응현황	79
- IFACCA 회원국을 중심으로	

---

# I. 개요

---

## 1. 연구조사 진행 개요

### 가.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경기에 직면함. 문화 예술 분야의 경우 C19 확산세에 따른 일시적인 시설 폐쇄, 공연, 전시의 전격 취소 등 예술 창작·향유 활동 전반에 걸쳐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음
- C19의 세계적 확산세에 따른 ‘코로나 쇼크’로 각 지역 권역 및 국가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처럼 전 세계적 C19 확산에 따른 피해 해소 및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 견인을 위해, C19 관련 각 지역 및 나라별 문화예술 지원정책 대응 현황을 파악할 필요
- 나아가 해외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예술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진단 후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시간 범위: 2020년 8월 ~ 2021년 2월(약 6개월)  
2020년 3-4분기 발표 지원 정책 및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  
※ 2021년 상반기 발표 내용 중 시의성이 있는 신규 사례 추가
- 공간 및 대상 범위: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문화예술 분야 관련 국제기구

#### 2) 연구 방법

- 사례 조사 및 문헌고찰
  - 해외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정책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참고
  - C19 문화예술 정책 관련 해외 토론회 및 보고서 등 문헌고찰 기반 사례 조사·분석
  - C19 해외 동향 관련 정책혁신부 자체 조사·분석 자료 활용

### 다. 기대효과

- C19 확산에 따른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전 세계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책 및 해결방안 참고
-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 국내 예술계가 직면한 한계점과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 활용 기대
- C19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대안 모색 기대



## II. 정책 대응 현황 및 분석

### 1. 전 세계 주요 대응 현황

#### 가. 위기·변화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 방향 수립

##### 1) 국제기구 대응

###### ■ 유럽연합(EU)

###### ○ 정책 일반 대응 현황

- EU 정책 지원 도구(총 3개)
  - 코로나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The Corona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CRII)
  - 코로나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플러스(The Corona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Plus, CRII+)
  - 비상 시 실업위험 완화 지원(the Support to Mitigate th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기금 조성
    - : 긴급 유럽 복구 기금조성-집행 계획으로, C19 확산 회복 촉진을 위해 회원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금리 차관을 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7,500억 유로 대출 계획 수립. 이 중 2/3는 보조금의 형태, 나머지 1/3은 조건부 대출로 운용 예정. 아래 그림과 같이 ① 회원국 복구 지원, ② 민간 경제 장려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③ 위기로부터 교훈 학습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집행

[그림1] 차세대 EU' 기금 집행 기준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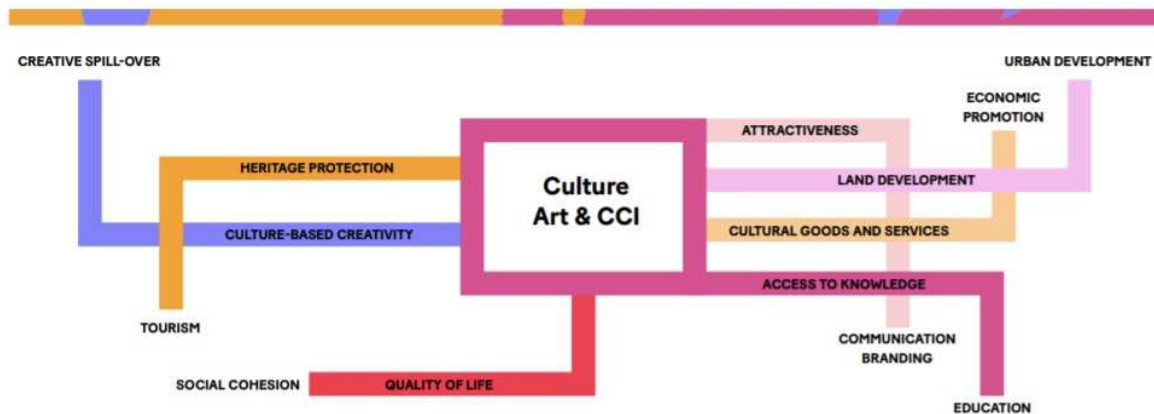


※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www.clustercollaboration.eu/news/next-generation-eu-european-commissions-new-recovery-instrument>

- EU 회원국 문화창조산업분야(Cultural and Creative Sector, 이하 CCS<sup>1)</sup>)에 대한 C19 영향 완화 조치 현황<sup>2)</sup>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장관 간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정치적 의제에 있어 문화는 C19 대유행으로 야기된 위기에 대한 ‘유럽 공동체에서 최고의 해독제’로 인식됨, 이처럼 CCS가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집단 감성의 엔진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규제로 인해 동 분야 경제 모델에 큰 피해를 초래함
  - 예술 기관은 2018년 기준 EU에서 870만명 이상을 고용하였고, 이는 EU 전체 취업자 수의 3.8%에 해당함(출처: 2019 EUROSTAT 문화 통계).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락과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회원국에 110만개의 문화 기업이 존재함. CCS는 관광, ICT와 같은 다른 필수 경제 분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창작·개발에서 유통·보급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제품(결과물)에 대한 가치사슬의 모든 활동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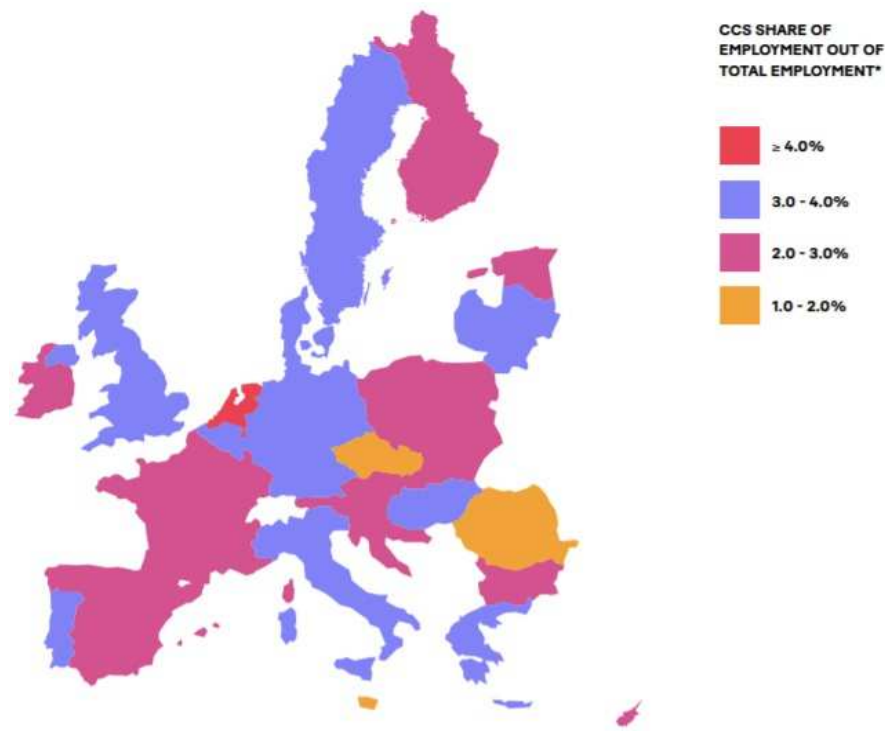
[그림2] 도시개발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문화(예술 및 문화창조산업)의 다양한 역할 개요  
(CCS의 사회·경제적 영향 관련 참고 도식)



※ 출처: European Investment Fund & EU, 2018, Market Analysis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Europe, p.9, Luxembourg  
([https://www.eif.org/what\\_we\\_do/guarantees/cultural\\_creative\\_sectors\\_guarantee\\_facility/ccs-market-analysis-europe.pdf](https://www.eif.org/what_we_do/guarantees/cultural_creative_sectors_guarantee_facility/ccs-market-analysis-europe.pdf))

1) CCS 정의: 문화적 가치 또는 예술적, 창조적 표현 활동, 시장 또는 비시장 지향적인 것에 기반을 둔 모든 부문  
2)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지원으로 KEA European Affairs(이하 KEA유럽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 ‘문화창조산업분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 20.06.15)’ 분석 및 시각화 결과 (※ 출처: [https://keanet.eu/wp-content/uploads/Impact-of-COVID-19-pandemic-on-CCS\\_COE-KEA\\_26062020.pdf.pdf](https://keanet.eu/wp-content/uploads/Impact-of-COVID-19-pandemic-on-CCS_COE-KEA_26062020.pdf.pdf))

[그림3] 전체 고용시장 대비 CCS 고용율 현황 차트(2016년 기준)



※ 출처: 앞의 책, p.9.

[그림4] CCS vs ICT, 숙박·식품서비스 시장 규모현황 대조(2015년 기준)

Criteria	ICT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CCS
Percentage of EU GDP <sup>(2015)</sup>	4% <sup>(2015)</sup>	4% <sup>(2015)</sup>	4.2% <sup>(2014)</sup>
Value added	EUR 570 billion <sup>(2015)</sup>	EUR 252.9 billion <sup>(2015)</sup>	EUR 290 billion <sup>(2016)</sup>
Employment	6.3 million <sup>(2015)</sup>	11.1 million <sup>(2015)</sup>	6.7 million <sup>(2016)</sup>
Number of companies	1.1 million <sup>(2015)</sup>	1.9 million <sup>(2015)</sup>	2.45 million <sup>(2016)</sup>
Average company size (Employment / Number of companies)	5.73 employees per company <sup>(2015)</sup>	5.84 employees per company <sup>(2015)</sup>	2.7 employees per company <sup>(2016)</sup>

⇒ 타 두 개 분야 대비, GDP, 부가가치 창출, 기업수 등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상회한 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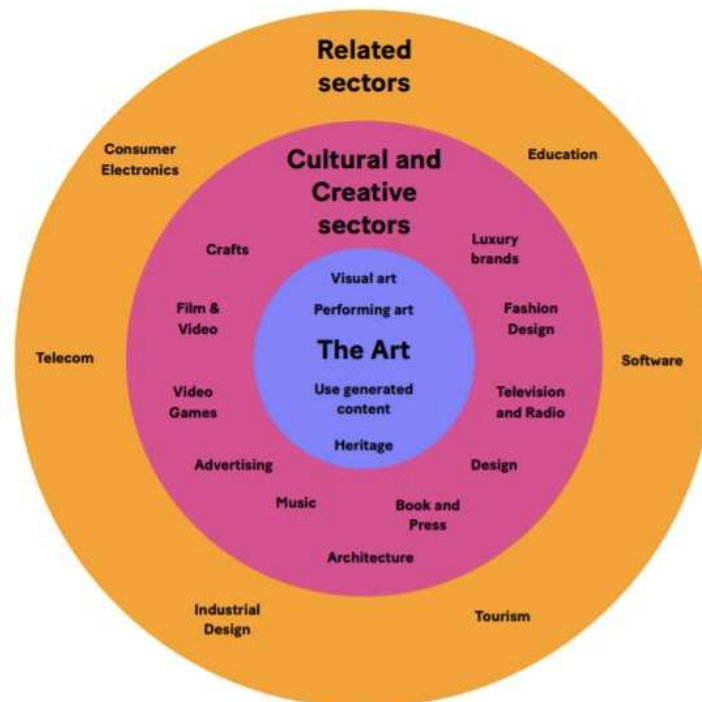
※ 출처: 앞의 책, p.11.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C19이 문화창조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함

[표1] EU 회원국 CCS 분야 C19 영향 완화 정책 조치 분류 기준

CCS 하위 분야(분야/장르)	시행 대책 종류	국가별 상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 및 영화</li> <li>• CCS 비특정 분야 (예: 전체 경제 분야)</li> <li>• 문화 분야</li> <li>• 음악</li> <li>• 공연</li> <li>• 출판</li> <li>• 시각예술</li> <li>•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li> <li>• 문화유산</li> <li>• 디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프로젝트 자금</li> <li>• 예외/ 지연/ 의무 양도</li> <li>• 연장/ 기존 지원책 소개</li> <li>• 실업 계획</li> <li>• 프리랜서 수당</li> <li>• 정보 자원</li> <li>• 지불 증대</li> <li>• 대출/ 담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회원국(27개)별 시행 대책 상세 정보</li> </ul>

[그림5] 참고 \_ CCS 분야 구조 동심원(KEA유럽문제연구소, 2006)



⇒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산업, ICT, 교육 등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이 외에도 창의적 예술과 연관산업 간 연계성을 도식화한 이론으로 문화경제학자 데이비스 스로스비(David Throsby, 2008)의 ‘예술과 문화산업의 동심원 모델’이 있음

※ 출처: 앞의 책, p.7.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C19가 문화창조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함. 이를 종합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림6] EU 회원국 CCS 분야 C19 영향 완화 정책 조치 시각화 결과



- 결과 및 시사점

(당면 과제)

- ① 비판적 시각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문화 종사자에게 세계적인 협력 주체로서 적극 참여 독려
- ② 불평등 해소 문화를 통한 사회적 포용 증진
- ③ C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젊은 세대의 행위적 변화에 대한 인지(개인주의, 사생활 중심, 디지털 및 가상네트워크 기반 커뮤니티 참여 등)
- ④ 이커머스 및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서의 승자독식 문제

(CCS를 위한 향후 정책 대응)

- ① 정책 수립 시 예술적 개입을 집약시킬 것
- ② 사회정책에 문화적 차원을 포함시킬 것
- ③ 문화 및 산업 정책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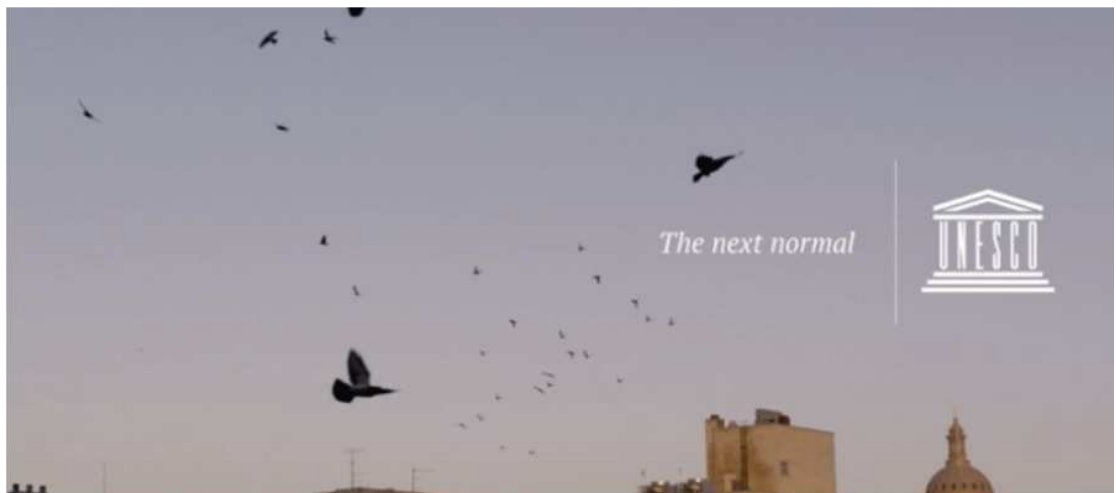
## ■ 유네스코(UNESCO)

### ○ 정책 일반 대응 현황

#### —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캠페인

- C19 위기상황이 우리의 우선 순위, 삶의 방식, 우리 사회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C19 이전의 현실은 더 이상 ‘정상’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시기임을 강조

[그림7] ‘넥스트 노멀’ 캠페인



UNESCO campaign challenges our perceptions of what back to normal should mean in the post-COVID-19 era.

※ 출처: <https://en.unesco.org/news/unescos-next-normal-campaign>

#### — 레질리아트 운동(ResiliArt Movement)

- ‘넥스트 노멀’ 캠페인의 일환으로, C19 위기상황을 맞아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레질리아트’ 운동을 전개함
- 온라인 가상토론을 통해 창조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C19 대유행 사태 진정 이후에도 대화, 데이터 공유, 포용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함. 전 세계 각 지역의 문화창조분야에서 적극 동참하고 주요 중심 의제의 공론화 및 확산을 권장함(총 110개국, 240회 토론회 개최/ 20.11 기준)
- 동시에 예술가의 작업 영상과 메시지 SNS 게시 후 해시태그를 붙이는 소셜미디어 이니셔티브(Social Media Initiative)를 추진함



[그림8] '레질리아트' 운동 메인 이미지



※ 출처: <https://en.unesco.org/news/resiliart-artists-and-creativity-beyond-crisis>

## 2) 국가별 대응

### ■ 영국

#### ○ 영국예술위원회 Let's Create

- 개요: 영국 예술분야 10개년 전략('20.1월 발표)
- 내용
  - 준비과정: 영국 예술위 중장기 로드맵 도출을 위해 영국 전역 6천명 대상 워크숍 진행 및 다양한 사전 연구 수행
  - 이 중 선행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Traverse 수행 'Draft Strategy for 2020-2030' 보고서(2019)의 최종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9] 영국의 예술, 박물관, 도서관의 향후 10년에 대한 국민 의견



※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shaping-next-ten-years/how-we-got-here>

- 새로운 비전 선포: 2030년이 되면 영국은 우리 개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고, 변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국가의 실현을 바람
- ACE 2020-30 전략

### 3대 성과

: 문화예술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적, 사회경제적 편차 문제를 극복하고, 개인의 창의성 증진에 기반해 다양성과 표현성을 개선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탄력회복성을 가지고 미래 혁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3가지 성과 목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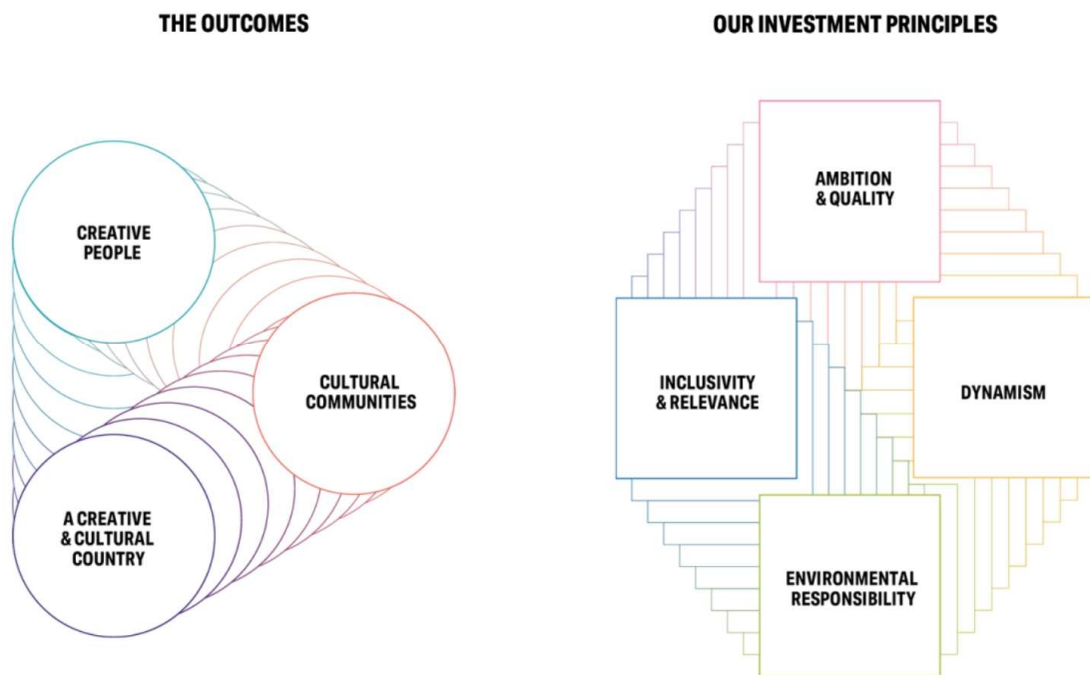
- 창의적인 시민(어린이, 청년 포함 아마추어 및 자발적 창작활동 중심)
- 창의적인 지역사회(마을 및 도시에서 아마추어 및 전문 종사자 연계 문화제공 협력 방안 모색)
-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지원(정규 교육 이후 창조산업 분야 종사자 중심 전문분야)

### 4대 원칙

: 문화기관이 3대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4대 원칙 제시.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기후 위기, 기술 적응과 같이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 대응과도 방향을 같이함

- 야심과 품질
- 다이나믹함(활력)
- 포용과 연관성
-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림10] 영국예술위 2020-2030 전략



※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publication/our-strategy-2020-2030>

###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 3단계 지원(Three Phases)

— 개요: 이 외에도 예술위 차원의 C19 대응 시책을 신속하게 마련

— 내용

- C19 이후 위원회 대응방안을 3단계(대응→안정화→적응)로 설정하여 예술지원 방향 제시
- C19 발생 이후 단기적 대응방안 뿐 아니라 C19 및 이후 (중장기) 대응방안 방안 모색



#### [참고] 영국예술위원회의 3단계 지원(Three Phases)

- 정부 및 문화예술 분야와 함께 대응 → 안정화 → 적응으로 구성되는 3단계 지원 방향 설정
- 1단계 : 대응
  - 단기적으로 최대한의 보호 조치
  - 기금 지원 목적 변경: 1억 6천만 파운드 (한화 약 2,400억 원)의 긴급 대응 기금을 지급했으며 재원은 대부분 복권 기금을 통해 조달
  - 기금 지원 조건 완화: 현금 압박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일자를 앞당겼으며 현(現)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지정을 1년 연장
  - 타 지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및 기타 기금 지원 기관의 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지
  - 증거 취합: 코로나 19 영향 조사를 통해 최선의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증거 취합을 지원
- 2단계 : 안정화
  - 재개에 따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개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조정과 변화된 환경에서의 운영을 지원
  - 코로나 19 영향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증거와 데이터, 인사이트를 취합
  - 1단계에서 취합한 증거와 관객 태도 조사, 국제 사례 연구 등의 자료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와의 논의에 활용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효과적인 재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 3단계 : 적응
  - 내년 초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뉴 노멀' 적응 지원을 목표로 삼을 것
  - 신규 10개년 전략이자 향후 위원회의 기본 투자 원칙이 될 Let's Create에 대한 3개년 이행 계획을 시행 예정
  - Let's Create에 명시된 목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납세자, 복권 기금에 경제·사회적 편익을 실현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예술가 및 문화예술 기관에 투자할 예정임. 이는 영국의 쇄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문서, 국제교류부(20.07), '영국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

#### ■ 독일

##### ○ 독일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예술가, 문화예술 협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연방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함
- 지원 유형으로는 ① 직접 금융 혜택(보조금, 대출), ② 간접 금융 혜택(세금 경감), ③ 코칭 조언 및 접근 기회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함<sup>3)</sup>
- 특히 모니카 그뤼터스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를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술과 예술인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일조함

3) 출처: <https://news.artnet.com/art-world/german-bailout-50-billion-1815396>

※ 기타 참고: 독일 연방정부 2021년 문화정책 예산은 19.4억 유로(약2조6천억원)로 2020년 대비 6.6%(1.2억 유로, 약1,600억원) 증가함. 이는 현 장관 재임 이래(2013~) 60%, 메르켈 총리 재임 이래(2005~) 85% 상승한 결과로 지속 증가 추세

[그림11] 독일 코로나19 대응 문화분야 소규모 비즈니스 긴급지원 관련 보도기사(20.03.25)

## Germany Has Rolled Out a Staggering €50 Billion Aid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That Boosts Artists and Galleries—and Puts Other Countries to Shame

"Artists are not only indispensable, but also vital, especially now," says the country's culture minister.

Kate Brown, March 25, 2020



“예술가들은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문화부 장관)

※ 출처: <https://news.artnet.com/art-world/german-bailout-50-billion-1815396>

### [시사점]

-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에 문화예술·산업 분야를 포함하는 정책 수립 촉구할 필요
- 재난상황을 맞아 일상의 중심 영역으로서 문화예술 및 동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대 확산 캠페인과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한 주요 사례 적극 참고  
→ 위원회에서도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 발신 필요
- 위원회 자체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외에도 예술인/단체 대상 위기 상황 적응과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필요

## 나. 코로나19 대응 주요 대응체계

### 1) 국제기구 대응 사례

■ 유럽 연합(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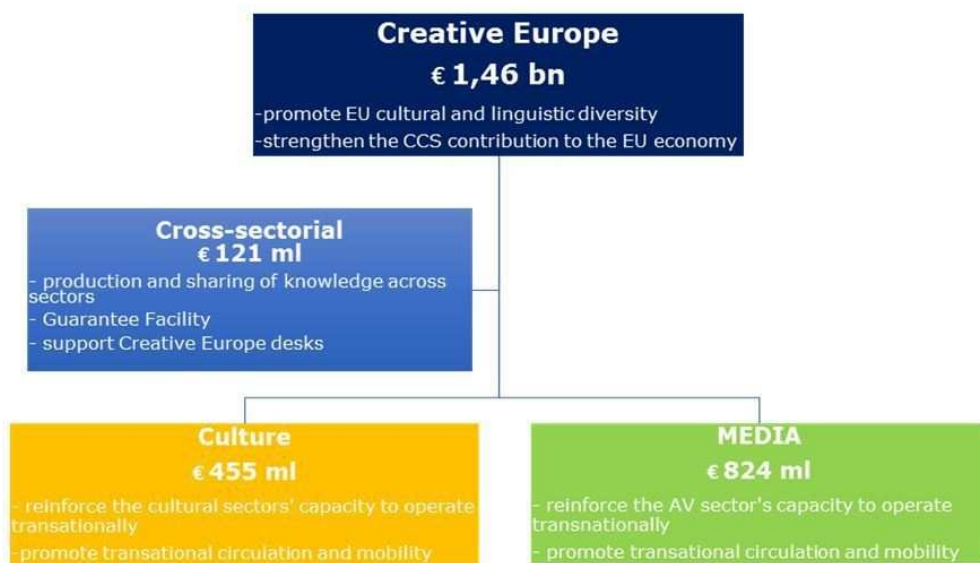
○ 지원협력 강화

- 네트워크 강화: 유럽 연합 위원회(EC)는 EACEA(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교육·시청각·문화집행기관) 및 EU 회원국, 크리에이티브 유럽 데스크(Creative Europe Desk, 38개 회원국에 설립), 네트워크 및 플랫폼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비공식적 가상 회의를 개최하며 C19로 위기에 직면한 EU 내 창조산업 견인책 마련을 중점 지원
- 대폭적인 예산 증액: 유럽 문화창조분야 견인 및 협력 증진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유럽’ 예산을 이전 대비('14-'20: 14.6억 유로) 50% 증액('21-'27: 22억 유로)

[그림12] EU ‘크리에이티브 유럽’ 지원사업 구조

## 1. Creative Europe objectives, structure and strands

### Creative Europe: structure, objectives and budgetary considerations



- 2020 유럽 협력 프로젝트(2020 European Cooperation Projects)<sup>4)</sup>
  - 초국가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EU 창조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유럽 문화와 창의적인 작품에 대한 접근성과 혁신 및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함
  - 총 예산 규모<sup>5)</sup>: 4,850만 유로(약 660억원, '19.11 지원 개시)
  - 지원 대상: 문화창조분야 기관(개인 지원 불가)
  - 프로젝트 지원 유형

	유형	내용	기간
1	소규모 협력사업	프로젝트 리더 및 2명 이상 파트너	프로젝트 최대 기간 : 48개월
2	대규모 협력사업	프로젝트 리더 및 5명 이상 파트너	

4) 출처: [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ulture/european-cooperation-projects\\_en](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ulture/european-cooperation-projects_en)

5) 출처: [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ontent/corona-virus-how-it-affects-creative-europe-programme\\_en](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ontent/corona-virus-how-it-affects-creative-europe-programme_en), [https://eacea.ec.europa.eu/sites/eacea-site/files/1\\_call\\_notice\\_en\\_eacea\\_32-2019\\_coop\\_2020.doc.pdf](https://eacea.ec.europa.eu/sites/eacea-site/files/1_call_notice_en_eacea_32-2019_coop_2020.doc.pdf)

[그림13] 2020 유럽 협력 프로젝트 지원 모집 공고



— 크리에이티브 유럽 데스크<sup>6)</sup>

- 개요: 시청각 및 문화 분야에서 유럽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럽 38개 회원국 중심의 지원 거점 체계
- 주요 역할: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 제공, 유럽 차원의 시청각 및 문화 관련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다른 나라의 문화기관 운영자 및 파트너 모색을 돕는 네트워킹 지원 등

[그림14] 회원국 별 ‘크리에이티브 유럽 데스크’ 행사 및 회의 장면



## 2) 국가 대응 사례

### ■ 영국

○ 디지털문화스포츠부(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DCMS, 이하 문화부)

‘문화 쇄신 TF 및 실무그룹(Cultural Renewal Taskforce and Sector Working Groups)’ 조직·운영

— 설립 취지 및 역할

- TF 설립 취지: 영국 ‘국가 코로나19 회복 전략(20.05.11)’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회복 방안 모색을 목표로 설립(20.5.22. 첫 미팅).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문화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부장관 5명과 문화체육기술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됨(이 중 네일 멘도자(Neil Mendoza)를 문화 회복 및 재생 위원으로 장관이 임명함)

6) 출처: [https://eacea.ec.europa.eu/creative-europe/creative-europe-desks\\_en](https://eacea.ec.europa.eu/creative-europe/creative-europe-desks_en)

[그림15] 문화부 TF 발표 관련 보도기사(20.05.21)



※ 출처: <https://www.artlyst.com/news/arts-renewal-taskforce-announced-culture-secretary/>

[그림16] ‘문화 회복 및 재생’ 위원으로 선임된 네일 멘도자 관련 문화부 트위터 공지(20.05.21)



※ 출처: <https://twitter.com/DCMS/status/1263154680110161920>

- 총 8개 영역 실무그룹 구성



	실무그룹	총괄	담당 영역
1	방송·영화 및 제작	미디어·데이터 부장관	TV 제작, 영화 제작, 음악 제작, 광고·비디오 게임, 오디오 제작
2	엔터테인먼트 및 이벤트	디지털·문화 부장관	유료(무료) 엔터테인먼트 및 이벤트(실내외): 영화, 연극, 음악 회장, 축제, 콘서트, e스포츠 모임
3	도서관 서비스		가정 배달 포함 도서관 서비스: 개인 단위 관리감독 하에 진 행되는 컴퓨터/인터넷/비즈니스 자문 시행, 대출 서비스(클릭 및 수집),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건물
4	박물관 및 갤러리		박물관과 갤러리
5	문화유산	스포츠, 관광, 문화유산 부장관	문화유산 기관 및 관광지: 실내외 활동, 임대 장소
6	스포츠		전문적인 엘리트 운동, 비전문적 운동 및 체육관·운동장·레 저 센터·아이스링크·볼링장·수영장 포함 물리적인 활동
7	방문 경제		관광 숙소, 컨퍼런스 포함 비즈니스 관광, 방문객 관광지, 놀 이동산/유원지/아케이드/동물원/빙고 및 카지노
8	청소년	시민사회 부장관	스카우트와 가이드와 같은 청소년 클럽 및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노동 중재

※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cultural-renewal-taskforce-and-supporting-working-groups#entertainment-and-events-members>

- 실무그룹 세부 과업: 창조산업 분야를 위한 안전한 C19 지침 개발을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복  
귀를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 개발

- 분야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를 위한 포럼 및 지침 개발 지원
- 실질적인 부문별 지침 관련 문제 파악과 해결
- 지침 보급 및 구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 '문화 쇄신 TF'에서 발생하는 조치 및 업데이트 논의
- 동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문화부 각료들에게 질문과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관련 주요 성과

- 영국의 세계적인 문화, 예술, 문화유산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15.7억 파운드(약 2조 4천억원) 투자
- 2020년 10월 기준, 휴양 및 레저 환경 제공을 위한 코로나 보안 재개장 가이드 47개 마련  
: 박물관 및 갤러리, 실외 이벤트 및 공연, 실내외 및 국내외 스포츠 등 문화부 관련 분야 대상

### [시사점]

- EU는 중앙 본부와 기 구축된 지원 거점 네트워크 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에 기반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두드러짐. 국가 단위에서는 영국이 문화부 주도로 C19 컨트롤 타워를 수립함. 문화부 장관 중심의 분과별 C19 대응 가이드 마련, 긴급 지원기금 조성, 코로나 이후 후속 복구 논의를 진행하며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
-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사회에 적시성 높은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위기대응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며, 재난상황 전후 세부 분야별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2.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공공·민간)

### 가. [지원금] 예술가·단체 지원 정책

#### 1) 재난시기, 예술인 및 단체 구호를 위한 기금 편성

: 문화예술 분야 종사 및 관계자 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신규 확보·집행

#### ■ 영국<sup>7)</sup>

##### ○ 긴급 대응 기금(Emergency Response Funds, ERF)

— 코로나-19 관련 기관 및 개인을 위한 긴급 대응 기금 마련 : 2,400억원(1억 6천만 파운드)

— 개인 긴급 대응 기금

- 예술가, 창작자, 프리랜서들을 위해 300억 원(2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약 375만원(2,500 파운드)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분야 : 전장르, 복합예술, 박물관 실무, 도서관 활동 등
- 추진현황 : 1·2차 동일 예산 배정

회차	접수 개시	마감
1회	2020년 4월 9일	2020년 4월 16일
2회	2020년 4월 16일	2020년 4월 30일

— 비(非)NPO 긴급 대응 기금

- 약 750억 원(5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약 53백만원(3만 5천 파운드)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
- 본 기금은 기관들이 위원회의 신전략 Let's Create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 자립 또는 향후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격요건 : 공공 기금 지원 문화 활동 이력이 있는 기관,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Music Education Hubs, Creative People and Places 주도 기관들은 본 기금 신청 자격이 없음
- 추진현황 : 개인 사업과 동일

— NPO 긴급 대응 기금

7)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작성(2020), '영국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자료).

- 약 1,345억 원(9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최대 9천만 파운드 지원
- 본 기금은 긴급 지원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NPO 및 CPP 기관들이 2020년 9월말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들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
- 지원금 상한: 신청 지원금에 상한은 없으나 기관들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만을 신청해야 함
- 자격 요건: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섹터 지원 기관 및 현재 국립 포트폴리오 자격이 철회되어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포함), CPP 컨소시엄을 대표해 Creative People and Places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관들

접수 개시	마감일	결정
2020년 5월 12일	2020년 5월 19일	2020년 6월 30일

#### ○ C19 관련 개인 지원

##### —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 지원 및 세액 감면 고용 지원

-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 (SEISS) : 월 평균 수입의 80%에 해당하는 과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약 11백만원(7,500 파운드) 한도 내에서 일시 수령. 청자는 코로나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해야 함

##### — 개인 및 피고용인에 대한 정부 지원

-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 : 법정 병가 수당(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경우에는 주당 94.25 파운드(한화 약 14만원)의 법정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국민수당(병가 수당 자격이 없는 경우), 근로 불가한 개인 혜택(고용 및 지원 수당 (ESA))

##### — 예술 실무자들을 위한 지원

- 코로나 19 영화 TV 긴급 구제 기금
- Freeland Foundation 긴급 기금 : 예술가 및 프리랜서 창작자들을 대상. 1,500파운드-2,500파운드, 총 1백만 파운드 지원
- 음악인 노조 긴급 지원 : 음악인 노조원들을 위한 기금으로 음악인 노조 웹사이트에서 신청
- 배우 구제 기금
- 왕립 극단 기금 : 연령에 관계없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공
- The Royal Variety Charity : 연령 제한 없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해온 근로자 지원
- PRS Emergency Relief Fund 긴급 구제 기금 : PRS 작가 회원으로 등록된 지 2년이 경과한 자로 지난 2년간 PRS 로열티 수입 500파운드(한화 약 7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 C19 관련 기관지원(Support for Organizations)

##### — 고용주 지원

-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CJRS) : 코로나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 지원
- 유연 무급 휴직제도, 육아 휴직자 면제, 병가수당

##### —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 및 영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들의 코로나 일자리 유지 제도 신청 자격을 확정 (자격 충족의 경우)



■ 독일

○ C19 관련 개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

<p>“우리는 고난과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분야는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p> <p>독일 연방 정부는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료주의를 최소화하여 지원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 입니다.”</p> <p>- 모니카 그뤼터스 독일 문화부 장관 (20.03)</p>
---

— C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20.3.23) 중 문화예술분야 지원책

구분	내용	상세내용
총 예산	- 약 1221억 유로(약164.6조원)	본 예산에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포함
지원 시기	- 2020년 상반기	
지원 항목	- 소기업, 자영업자 지원(문화예술인 문화분야 소기업 포함) * (1인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소기업) : 3개월 간 최대 9천 유로(약 1.2천만원) 무상지원 * (10인 이하 소기업) : 3개월 간 최대 15천 유로(약2천만원) 무상지원	500억 유로
	- 의료지원	585억 유로
	- 실업수당 및 사회보장비 지원 * 예술가 사회보장 보험금 조정: 공연취소 및 수입 감소에 따른 변동된 예상수입을 신고, 보험료 재산정 및 지불 조건 완화 * 예술가보험(Künstlersozialkasse) 제도: 매년 예상 수익 기반 금액 책정 및 비용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	77억 유로
	-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예산 증액 * 예술활동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C19로 작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대상 전염병보호법에 의거한 보상조치 시행	59억 유로

※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106(20.03.23);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정책동향: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지원 방안 현황자료(20.04.13)'에서 재인용, <https://news.artnet.com/art-world/german-bailout-50-billion-1815396>

— New Start Culture(‘새로운 시작 문화’: 구호·미래 기금)<sup>8)</sup>

- 지원 목적: C19로 인한 어려움을 맞아, 독일 내 문화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마련함

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neustart-kultur-1761588>,  
<https://news.artnet.com/art-world/germany-another-1-billion-culture-bailout-1878870>

구분	내용	상세내용
총 예산	- 약 10억 유로(약1.35조원)	
지원 기간	- 2년(2020-2021)	
지원 항목	예술가와 딜러 대상 미술품 수집 지원 강화 등	
	- C19 대유행 관련 투자	최대 2.5억 유로
	- 문화 인프라 강화	최대 4.8억 유로
	- 디지털, 문화 제안을 포함한 대안	최대 1.5억 유로
	- C19 대유행 관련 매출 손실 및 연방정부 지원 기관 및 프로젝트의 추가 요구에 대한 보상	최대 1억 유로
	- 예술 부문 세율 3% 인하(19% → 16%)	-

※ 출처: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보도기사 내용을 표로 재구성.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neustart-kultur-1761588>

## 2) 기존 지원·집행방식 수정 및 재편성

### ■ 독일

#### ○ 기 집행 지원예산 보장

- 문화부에서는 ‘사회보장비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C19로 인한 조기 종료 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회수하지 않고, 행사 취소로 인해 남은 예산만 반납하도록 함

### ■ 스코틀랜드

#### ○ 기 약정 지원금 전액 보장

-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에서는 기금 지원 예술활동의 취소, 축소, 일정조정 여부에 상관없이 기 약정한 모든 지원금을 지급. 단, 모든 기금 수혜 기관을 대상으로 예술가 및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제공 가능한 도움에 대한 고민을 요청함

### ■ 캐나다

#### ○ 기 수령 지원금 보장

- 캐나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기 수령 지원금에 출장비가 포함된 신청자, 또는 취소가 필요하거나 기금 미사용 분이 있는 공개 행사의 경우 최종 지원금 보고서에 ‘코로나19가 기금 지원 활동에 미친 영향과 기금 사용처를 상세 기재한다’는 조건으로 기타 지원 적격 경비로 사용 가능(보고서 제출 기간도 유연하게 적용)

### ■ 호주

#### ○ 평가기준 완화, 기금 지급 방식 유연화 및 용도 다변화

- 호주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관객 성과지표 달성 요건을 없앴. 나아가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간소화 함. 향후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원기금을 필수 비용처리(임금, 임대료, 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시사점]

- 위기상황/단계별 기금운용 방안 수립: 재난상황의 단계별 대응방안 설정 시, 위급성 및 시급성이 높은 최고위험 단계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예술인 구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
  -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가능
- 위기상황/단계별 지원사업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기관의 유연한 재난상황 대처를 돕는 기준 원칙 수립 및 수혜 예술가/단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확립 필요
- 유사 재난상황 시 예술가, 문화예술분야 자영업자 및 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고용형태 및 구조가 취약한 예술분야 주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세율 인하 등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함

## 나. [시설 가이드] 시설 운영 및 재개관 지원 정책

### 1) 전시·공연장 안전 가이드 수립

■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

○ 박물관 보존/보안 강화 및 재개관 준비 가이드 제공

— 주요 내용

- 위기 상황 및 대상별 다양한 대응책 제시: 소장품 보존, 관객 소통, 커뮤니티 연계, 재개관 이후 대응을 위한 필수 기본 지침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소장품 보존	- 일반 준수원칙, 전시운영 기본가이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소장고 및 업무 영역 가이드
박물관 보안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마련한 보안지침 추가 강화 및 집행 권고안
관객 소통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 관객 참여 증진방안 및 대표 사례
커뮤니티 연계	-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지원을 위한 8단계 가이드
재개관	- 일반 관람객과 박물관 직원의 안전을 위한 재개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객의 도착에 대한 준비</li> <li>○ 관람객의 출입 : 방문자의 흐름에 적응, 건강 지침 강화, 필요시 일부 접근 제한</li> <li>○ 리셉션 및 보안 직원</li> <li>○ 청소 및 모 존 지침</li> <li>○ 사무실 내 지침</li> </ul>

\* 다만, 위의 지침에 대응할 수 없는 박물관의 경우 임시 폐관을 연장하는 것을 추천

※ 출처: ICOM 홈페이지에서 내용 재구성 <https://icom.museum/en/covid-19/>

## ■ 영국

### ○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분야 5단계 로드맵 발표(20.06.26)

#### — 주요 내용

- 문화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문화쇄신TF’에서 회의와 의로계 자문 및 최신 공중보건 가이드를 바탕으로 공연예술 분야를 위한 5단계 로드맵 수립 및 발표

- 1단계 - 리허설 및 연습(관객 없음, 사회적 거리 제한 가이드라인 준수)
- 2단계 - 방송 및 녹화용 공연(사회적 거리 제한 가이드라인 준수)
- 3단계 - 제한된 거리 간격 내 관객이 착석한 有 관객 야외 공연 및 실내 파일럿 공연
- 4단계 - 실내/외 공연 허용(실내에는 제한된 거리 간격 내 관객 착석 포함)
- 5단계 - 실내/외 공연 허용(관객 수가 많은 실내)

### ○ 공연예술 분야 ‘신규 가이드(New Guidance)’ 발표(20.07.11)

#### — 배경

- 2020년 7월 현재 로드맵 기준 3단계 상황임에 따라, 야외 공연 재개관 허용 및 ‘신규 가이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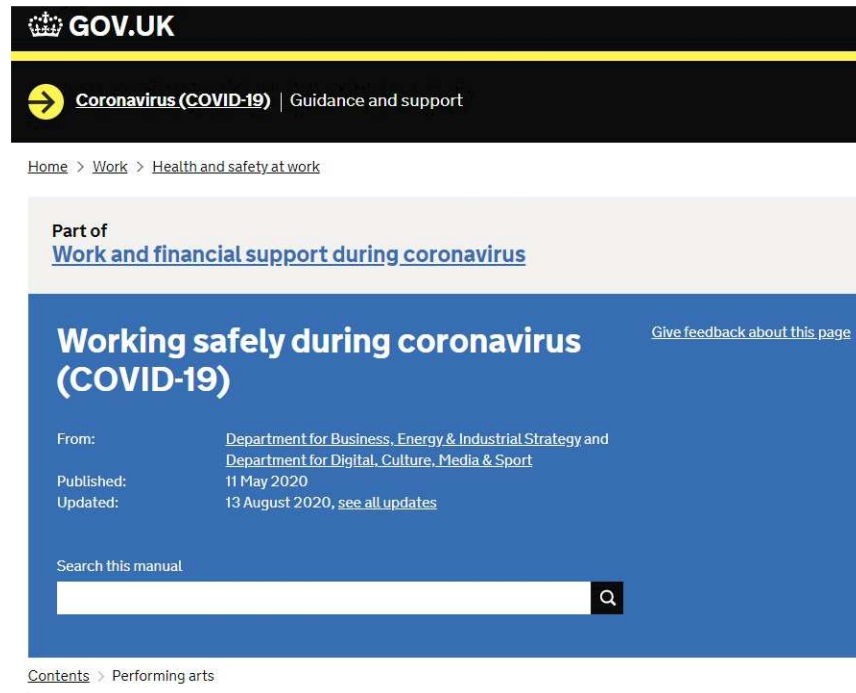
#### — 주요 내용

- 5단계 로드맵 단계별 관객들을 공연작으로 복귀시키는 방법 제시. 캐스팅, 사운드·조명, 의상, 피팅~망토실, 오케스트라 피트, 헤어, 메이크업에 이르기 까지 공연의 모든 측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공연계가 안전하게 공연예술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이해 제고 및 관객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기타) 이 외에도 영국 국무장관은 영국 공공보건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BBC 전문 음악가,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브리스톨대의 과학자들과 협력해 합창 및 금관 악기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의뢰함. 이를 통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작업을 테스트함으로써 공연예술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밝혀내고자 함

#### 공연예술 분야 ‘신규 가이드’ 주요 내용

- 공연장 관객 수용력 축소 및 제한된 티켓 판매로 사회적 거리 유지
- 모든 티켓은 온라인에서 구매해야 하며, 관객 추적에 도움이 되는 전자티켓팅 권장
- 대기열이 생기는 공연장에서는 사회적 거리 표시(social distance marking)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제한된 진입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 특히 대공연장 심화 청소(deep cleaning) 횟수를 늘릴 것
- 다음 관객이 도착하기 전에 심화 청소(deep cleaning)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공연 시간을 배정해야 함
- 단체 또는 청중 앞에서 노래하고 관악기와 관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전문가로만 제한됨
- 연주자, 지휘자, 음악가는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함

[그림17]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분야 신규 가이드(New Guidance)’ 및 목차 예시



## Performing arts

Guidance for people who work in performing arts, including arts organisations, venue operators and participants.

Applies to: England (see guidance for <a href="#">Wales</a> , <a href="#">Scotland</a> , and <a href="#">Northern Ireland</a> )	<b>4. Keeping those involved in the performing arts safe</b>
<b>Introduction</b>	<b>In this section</b>
<b>1. Thinking about risk</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4.1 General guidance during rehearsals, training, pre-production and performance</a></li> <li>• <a href="#">4.2 Workstation-based environments</a></li> <li>• <a href="#">4.3 Meetings</a></li> <li>• <a href="#">4.4 Common Areas</a></li> <li>• <a href="#">4.5 Changing rooms and showers</a></li> <li>• <a href="#">4.6 Accidents, security and other incidents</a></li> <li>• <a href="#">4.7 Playing music</a></li> <li>• <a href="#">4.8 Shift patterns and working groups</a></li> <li>• <a href="#">4.9 Casting and auditions</a></li> <li>• <a href="#">4.10 Training</a></li> <li>• <a href="#">4.11 Set design and construction</a></li> <li>• <a href="#">4.12 Sound and lighting</a></li> <li>• <a href="#">4.13 Stage management and back-stage</a></li> <li>• <a href="#">4.14 Orchestra pits and band areas</a></li> <li>• <a href="#">4.15 Costumes and concert dress</a></li> <li>• <a href="#">4.16 Hair and make-up</a></li> <li>• <a href="#">4.17 Travel</a></li> <li>• <a href="#">4.18 Communications and training</a></li> </ul>
<b>2. Who should return to training, rehearsal and performance</b>	
<b>3 Managing performances</b>	
<b>4. Keeping those involved in the performing arts safe</b>	
<b>5. Cleaning objects, equipment and environments</b>	
<b>6.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face coverings</b>	
<b>Where to obtain further guidance</b>	
<b>Appendix</b>	

○ ‘박물관 재개관을 위한 모범 실행 가이드(Good Practice Guidelines for Reopening Museums)’ 발표(20.09.10)


— 배경

-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 계획: 영국 정부의 C19 회복 전략(Our Plan to Rebuild: The UK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strategy)’(20.05.11)에 7월 4일부터 폐쇄된 기업과 공공장소 재 개방(개관) 의도가 명시됨. 이에 따라 수상은 예정대로 7월 4일 부터 박물관을 포함한 ‘공적 장소, 접대 및 여가 사업’ 부문이 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이에 국립박물관장협의회(the National Museum Directors’ Council, NMDC)에서는 영국 문화부 및 산하 코로나19TF 소속 박물관·갤러리 워킹그룹 등의 지원을 받아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영국 내 박물관 분야 고용주, 직원, 자영업자, 자원봉사자들이 C19 대유행 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자료임

‘박물관 가이드’ 주요 목표 및 방향

- 박물관이 재개관 할 준비가 되기 전에 박물관에서 해결하기 원하는 실용적인 고려사항 제공
- 정부 발행 코로나-안전 지침과 함께 사용되며, 기존 규정의 대체가 아닌 개선을 지향함
- 박물관이 위험을 관리하고 사업계획 활동을 수행할 때 이미 고려하는 기존의 사업 관행과 표준 구조를 같이 알려줌
- 이 지침은 폐쇄에 대한 다른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 지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 예정

[그림18] ‘박물관 재개관을 위한 모범 실행 가이드’ 표지/ 목차 예시

<p>v. 1.12 September 10th 2020</p> <p>Coronavirus (COVID-19) NMDC Good Practice Guidelines for Reopening Museums After July 4th 2020</p> 	<p>Table of cont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inciples for reopening.....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Considerations for reopening..... 4</li> <li>1.2. Museum considerations..... 5</li> </ul> </li> <li>2. Risk assessment in the workplace.....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Thinking about risk..... 6</li> <li>2.2. Managing risk..... 8</li> <li>2.3. Sharing the results of your risk assessment..... 9</li> </ul> </li> <li>3. Workforce safety and wellbeing.....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Who should go to work..... 11</li> <li>3.2. People who need to self-isolate..... 13</li> <li>3.3. Equality in the workplace..... 14</li> <li>3.4. Social distancing and safe working..... 14</li> <li>3.5. Training and communication..... 16</li> <li>3.6. Accidents, security and other incidents..... 18</li> </ul> </li> <li>4. Public safety..... 18</li> <li>5.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Face Covering..... 23</li> <li>6. Adapting buildings and processes..... 26</li> <li>7. Business Case..... 31</li> <li>8. Fulfilling public purpose..... 33</li> <li>9. Transport to support visits, workers travel and supply chains..... 35</li> <li>10. Local Contexts..... 36</li> <li>Appendix - Definition and links..... 37</li> </ul>
--	--

— 박물관 재개관 타임라인<sup>9)</sup>

• 주요 내용:

기 간		내 용
'20년	6월 (로드맵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15일부터 문을 열 수 있는 필수적이지 않은 소매업과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교 재개</li> <li>6월 23일: 정부에서 7월 4일부터 박물관 재개관 가능 발표. 7월 재개관을 계획하는 박물관은 적응 과정을 시작하고, 휴업 중 일부 인력을 복귀시키고, 기계를 가동시켜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배달을 받고, 공간을 단장할 것</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월 4일부터 박물관을 포함한 다수의 레저 시설 재개관 허용</li> <li>7월부터 박물관의 운영 모델과 지역적 맥락(예: 역량이 작은 박물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거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에 부합할 경우 재개관 가능</li> <li>정부 지침에서 7월 4일 이전 가게 오픈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카페나 소매가게 개관을 고려하고 필요시 제안을 조정해야 할 것</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 중 재개관 준비 박물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재개관한 박물관은 성공적인 시험을 거쳐 운영 장소의 수용량/수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li> </ul>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 개관이 어려운 박물관들은 9월 또는 10월에 재개관 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일부 박물관의 경우 비수기 기간 중 재개관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오랫동안 폐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일자리 유지 계획(the Job Retention Scheme)은 10월 말까지 지속</li> </ul>
	동절기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쇄단계(lockdown) 이후 성공적으로 재개관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과정을 테스트해 전체 박물관이 추가 시설공간을 재개관할 수 있게 됨. 이 외 박물관들은 동절기에 재개관 시작</li> </ul>
'21년	춘절기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가을/겨울 개관이 불가능했던 박물관은 2021년 봄까지 재개관</li> </ul>

○ 테이트미술관 예시: 관람객 방문 시 유의사항 영상 및 가이드(20.07.26)

— 배경

- 공공미술관인 테이트 미술관(Tate Gallery), 테이트모던 미술관(Tate Modern Gallery) 재개관에 따라 관람객 방문 전·후 유의사항에 대한 영상 및 기본 가이드 제공

— 주요 내용

9) ※ 출처: <https://www.nationalmuseums.org.uk/coronavirus-update/possible-timeline-museum-reopening/>




[그림19] 관람객 대상 미술관 방문 전·후 유의사항 영상 및 가이드

# Welcome back to Tate


Plan your visit to our galleries



## Your safe visit




**Book a timed ticket in advance**

Timed tickets are required to enter our galleries for both the free collections and paid exhibitions.

All visitors, including Members, Patrons, Supporters and Corporate Partners, need to book online in ad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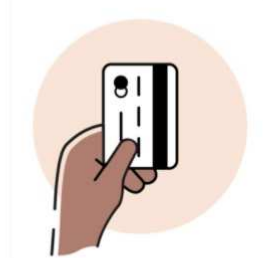
Book your visit →



**Follow the one-way routes**

One-way routes and safe distancing guidelines are in place throughout the galleries.


Prepare for a bit more walking than usual. You can find access information on each gallery page



**Pay with card**

We only accept card or contactless payments in the gallery to minimise touchpoints.

There are also protective screens in place at all desks.



**Extra safety measures**

All visitors are required to wear face coverings in our galleries, apart from those who are exempt.

Hand sanitiser is available in key areas, along with increased cleaning regimes in toilets and other high use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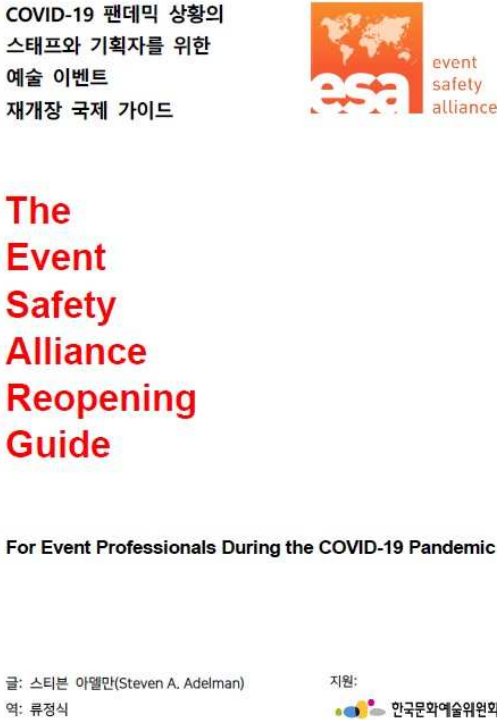
## ■ 미국

- 세계 최대 공연안전 민간협회인 ESA(Event Safety Alliance)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스태프와 기획자를 위한 예술 이벤트 재개장 국제 가이드’를 발표하며 전시 및 공연장 재개장 시 참고 가이드라인 제시



- 이와 관련, 아르코인력개발원에서 ESA와 저작권 협의 후 번역·배포 및 <코로나19 대책 특별강의: 공연장 뉴노멀(New Normal) 보건관리> 다수 진행(2020년 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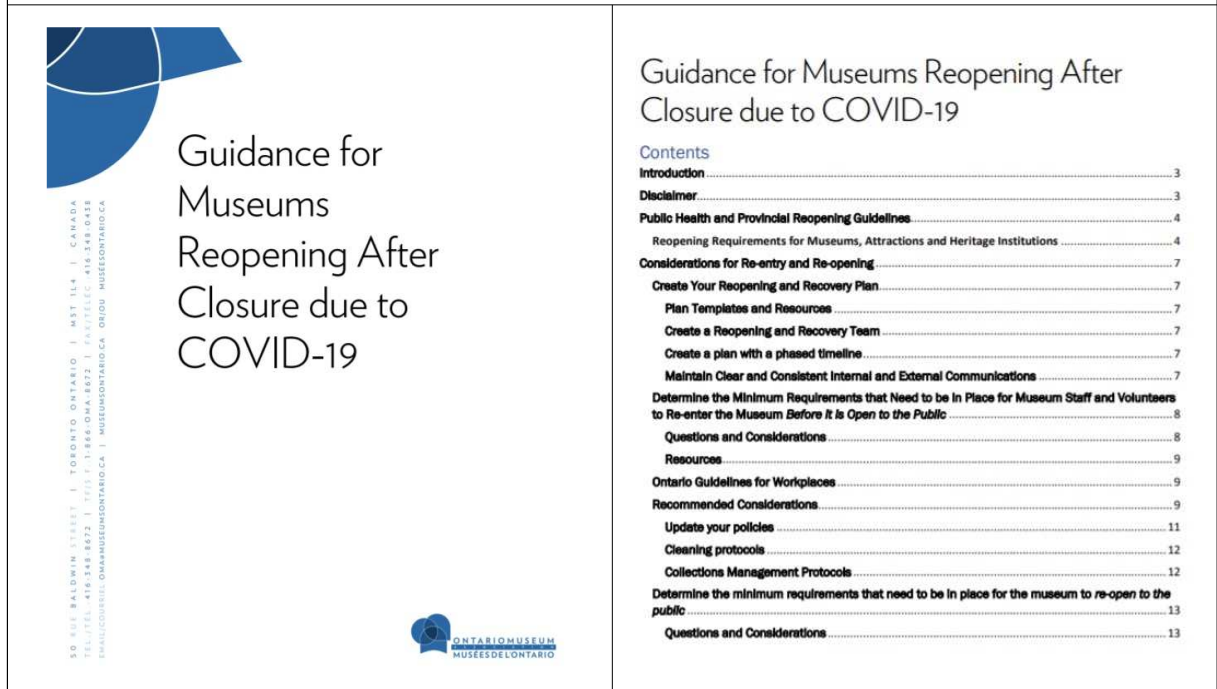
[그림20] '예술 이벤트 재개장 국제 가이드'(영한 번역본)

 <p>COVID-19 팬데믹 상황의 스태프와 기획자를 위한 예술 이벤트 재개장 국제 가이드</p> <p><b>The Event Safety Alliance Reopening Guide</b></p> <p>For Event Professiona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p> <p>글: 스티븐 아델만(Steven A. Adelman) 역: 류정식</p> <p>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개 시기의 결정 :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할 때</li> <li>2. 관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유도할 것인가?</li> <li>-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li> <li>- 어디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li> <li>- 어떻게 메시지 전달하는가?</li> <li>- 동선 추적</li> </ul> </li> <li>3. 스태프의 보건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관리자</li> <li>- 스태프 보건을 위한 수칙</li> <li>- 유증상이 있는 스태프를 위한 수칙</li> <li>- 확인된 COVID-19 사례에 대응</li> <li>- 유급 병가</li> </ul> </li> <li>4. 건물의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촉이 잦은 곳을 소독</li> <li>- 청소 및 소독</li> </ul> </li> <li>5. 입구와 출구</li> <li>6. 로비의 환기, 식음료 시설 및 머천다이즈 관리</li> <li>7. 프로덕션 보건 관리</li> <li>8. 법적 문제</li> </ol>
--	--

## ■ 캐나다

- 온타리오 박물관 협회(The Ontario Museum Association, 이하 OMA) 재입장·재개관 가이드
  - 가이드 마련 취지: 온타리오 박물관의 재개관 여부, 시기,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이드를 마련
  - 박물관 재개관 결정은 정부 및 과학적 가이드(정부 공공보건 가이드 및 지역 재개관 가이드)에 기초함. 하지만 다양한 박물관 관계자(디렉터, 재정지원자, 책임인자)가 제언한 고려사항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 박물관의 재개관을 고려하기 보다는 재입장/재개관 준비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후속 대응 가이드를 준비함
  - 이에 문화유산·스포츠·관광·문화산업부(The Ministry of Heritage, Sport, Tourism and Cultural Industries)와의 컨설팅을 통해 '박물관, 관광, 문화유산 기관 재개관 필수지침'을 마련함

[그림21] '코로나19에 따른 폐쇄 이후 박물관 재개관 가이드' 표지/ 목차 예시



## ‘박물관, 관광, 문화유산 기관 재개관 필수지침’ ‘박물관 등 구체 지침’ 주요 내용

\* ‘비상 관리 및 시민 보호법’ 263/20 상 2단계와 지역 재개관 체계 2단계(20.6 현재)에 따라 박물관, 갤러리, 동물원 등 주요 명소를 재개관함.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일반 지침

- 개관한 기업/단체 책임자는 기업/조직이 산업보건안전법 및 제반 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함
- 개관한 기업/단체 책임자는 신체적 거리두기, 청소/소독에 관한 조언, 권고, 지시를 포함한 보건공무원의 조언, 권고 및 지시에 따라 기업/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개관한 기업/단체 책임자는 사업장/시설물의 구성원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타인과 2m 거리두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위의 항은 사업장/시설에 도착한 사람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시설을 운영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음
- 개관한 사업장/시설 책임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화장실의 위생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함

### ○ 구체 지침

- 인터랙티브 전시물, 일반 전시물에 대한 일반인 접근 불가
- 사물함 제공 금지
- 고객에게 대여/제공되는 모든 장비는 매회 사용 전후로 세척 및 소독해야 함

○ 박물관 등 주요명소의 안전한 재개관 방법에 대한 가이드는 기존 지역 가이드 지침과 일치해야 함

### 재입장 및 재개관 고려사항

- 재입장 및 재개관 계획 수립
  - 템플릿과 자원 계획(온타리오 주정부 제공 'C19 작업장 안전 계획 개발 방법' 참고)
  - 재개관 및 복구팀 신설
  - 단계별 타임라인 계획 수립
  - 명확하고 지속성 있는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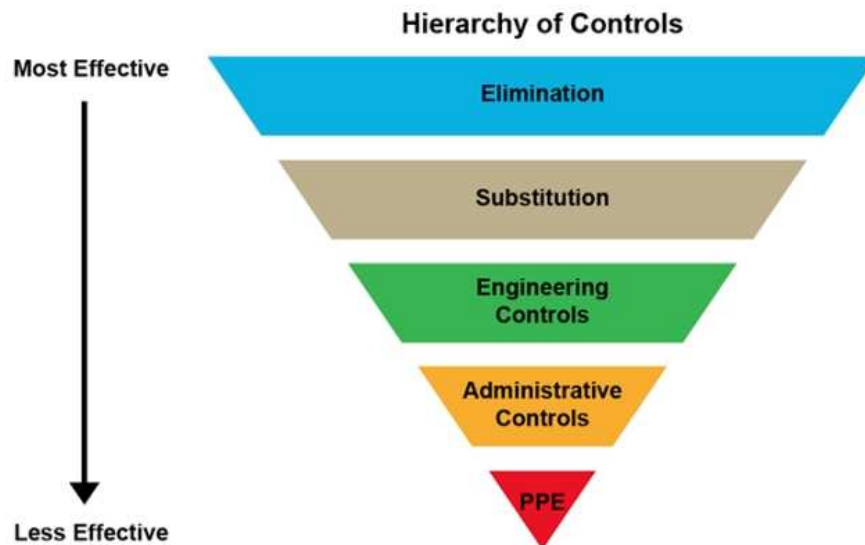
### 재개관 이전 박물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박물관 재입장을 위한 필요 최소 요구사항 결정

- 기 수립한 계획의 타임라인에 맞춰, 재정, 직원 및 시설 운영, 안전 장비 및 보급품 관련 '질문 및 고려사항' 사전 점검 필요

### 추천 고려사항

- 통제 위계(The Hierarchy of Controls): 작업장의 올바른 통제를 도와주고, C19 및 모든 위험요소에 해당
  - 1단계: 제거(Elimination)
  - 2단계: 대리(Substitution)
  - 3단계: 기술 통제(Engineering controls)
  - 4단계: 행정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
  - 5단계: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 ※ 1~5단계로 갈수록 통제 효과성 감소: 1단계 (매우 효과적) → 5단계 (매우 덜 효과적)

[그림22] 통제 위계 도식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및 손소독제, 보호 장비, 직원 시간차 이동, 개인 자가진단, 아픈 사람을 위한 자가진단 절차 마련, C19 증상 게시/홍보, 모든 정보에 대한 직원 접근성 보장

※ 출처: <https://members.museumsontario.ca/sites/default/files/OMA%20Guidance%20for%20Museums%20Reopening%20After%20Closure%20Due%20to%20COVID-19.pdf>

■ 기타\_관광분야

- 안전한 여행 장려를 목표로 ‘문화적 지속가능한 관광(Cultural Sustainable Tourism)’ 학회에서 ‘전염병 시대 여행 최적화 가이드’ 마련 및 제시

[참고] ‘전염병 시대 여행 최적화 가이드’ (7단계)



- 1단계: 여행 계획, 붐비는 지역 방문을 최소화하고 소식을 계속 접할 수 있는 앱(app) 다운로드
- 2단계: 여행지 도착 전 요구되는 입국 제한, 검사, 격리 요구사항 파악
- 3단계: 재입국 제한과 같은 도착 국가의 공중보건 요구사항 (사전) 이해
- 4단계: 면대면 상호작용 기피를 위한 여행 및 활동의 온라인 또는 핸드폰 예약
- 5단계: 여행자 보험 준비 및 보험 제공 범위수준 만족여부 확인
- 6단계: 코로나 검사 양성 결과 시 여행 목적지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할 준비
- 7단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여행을 절대 삼갈 것

## 2) 안전한 공연 환경조성을 위한 실증 연구 진행

■ 독일

- Restart-19<sup>10)</sup>

— 공연장 내 C19 바이러스 전파성 실증 실험

10) ※ 자료: <https://restart19.de/en/> ,

관련 보도기사: <https://www.forbes.com/sites/danielcassady/2020/08/22/germany-rocks-out-to-study-how-coronavirus-spreads-indoors/?sh=5636aa943e56>

[그림23] 'Restart-19' 실험 장면



- (실험 내용) 할레대학 의료 센터(The Univ. Medical Center Halle)에서 대규모 실내 이벤트 중 C19 감염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진행
- (시행 목적) C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콘서트와 같은 공연행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소요 비용) 총 99만 유로(약 13억원)
- (실험조건) 총 3가지 조건 실험 진행

- 모집단: 매회 18~50세 지원자 2,000~4,000명 대상
- 일시 및 장소: 2020.08.22, QUARTERBACK Real Estate ARENA
- 조 건: ① 4,000명 관객 대상 팬데믹 이전처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벤트 상황  
 ② 4,000명 관객 대상 참여자 간 사회적 거리 및 최적화된 위생수칙 준수  
 ③ 1.5m 간격 유지 스탠딩 공연. 2,000명의 실험 참여자 대상 입장 전 바이러스 검사 시행, 마스크와 거리두기 준수 여부 확인 가능한 전자 추적 장치 제공. 독일 팝가수 Tim Bendzko 콘서트를 진행하여 관객 행동을 최대한 실제와 같이 파악하고자 함



- (최종결과, 20.10.29)

- 시사점: 유럽 권역에서 최초로 시행된 대규모 공연장 실험연구로, 위생관념을 잘 준수한다면 C19 상황에서 (대규모 콘서트 개최 시) 전체 유행병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매우 낮을 것으로 확인됨
- 핵심 방역 요소
  - 행사장 내 적절한 환기 및 정기적인 공기 교환을 제공하는 환기 기술이 필요하고, 적절한 환기 기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팬데믹이 지속되는 한 위생 개념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콘서트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요원들은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스낵바에서 장시간 붐비는 접촉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이벤트 중 음식물의 섭취는 좌석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대기실을 실외로 옮겨야 함

## ■ 프랑스

### ○ 테스트 콘서트<sup>11)</sup>

#### — 신규 프로토콜에 따른 공연장 내 바이러스 확산 위험 평가 테스트

- (실험 내용)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 장소 재개장 여부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 콘서트’를 2회 개최하고,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의사, 감염병 전문가 등)에서 면밀한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할 예정
- (기대효과) 연구진이 콘서트나 이벤트 중 감염 될 추가 위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공연장 재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실험조건)

- 모집단: 매회 건강한 지원자 1,000명 대상
- 일시 및 장소: 2021년 3, 4월(총 2회), 마르세이유 돔(8,500명 수용 규모) 진행 예정
- 기타: 장소 전체 소독 후 실시
  - 각 테스트 참여자는 참석 전후(총 2회) PCR 테스트 실시 필수
  - 참석자 결과는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은 유사한 그룹 참석자와 결과와 비교할 예정

11) ※ 출처: <https://www.connexionfrance.com/French-news/France-uses-test-concerts-to-study-public-venue-Covid-risk-as-high-profile-art-world-calls-for-museum-reopening>

### [시사점]

#### (위원회 차원)

- 위원회 주요 시설별 위기상황, 단계, 대상(직원, 지원사업 대상자, 관객 등)에 따른 시설운영 세부 가이드 확립 필요

#### (예술분야 일반)

- 과학적/실험적 연구에 기반한 C19 대응 안전한 공연·전시 요건 선제 파악 필요. 향후 문화예술 분야별 세부 방역지침 수립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정부 보건방침 준수와 동시에 재정/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다만, 실증 실험연구는 정부 주도의 과학적, 체계적 계획과 시행이 수반될 필요)
- C19뿐만 아니라 상시 재난상황에 대비한 분야별 세부 가이드 마련 및 지속 업데이트 진행 필수

## 다. [신규 사업] 대안적 신규 예술지원 정책(예술과 기술 융합 등)

### 1)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온라인 창작 및 콘텐츠 플랫폼 지원

#### ■ 프랑스

##### ○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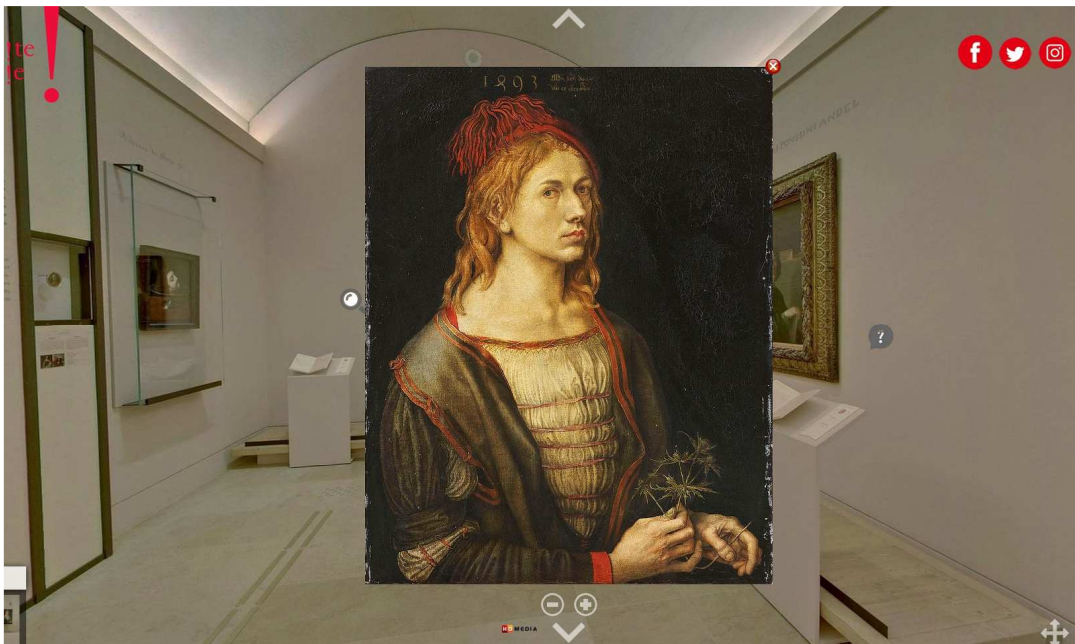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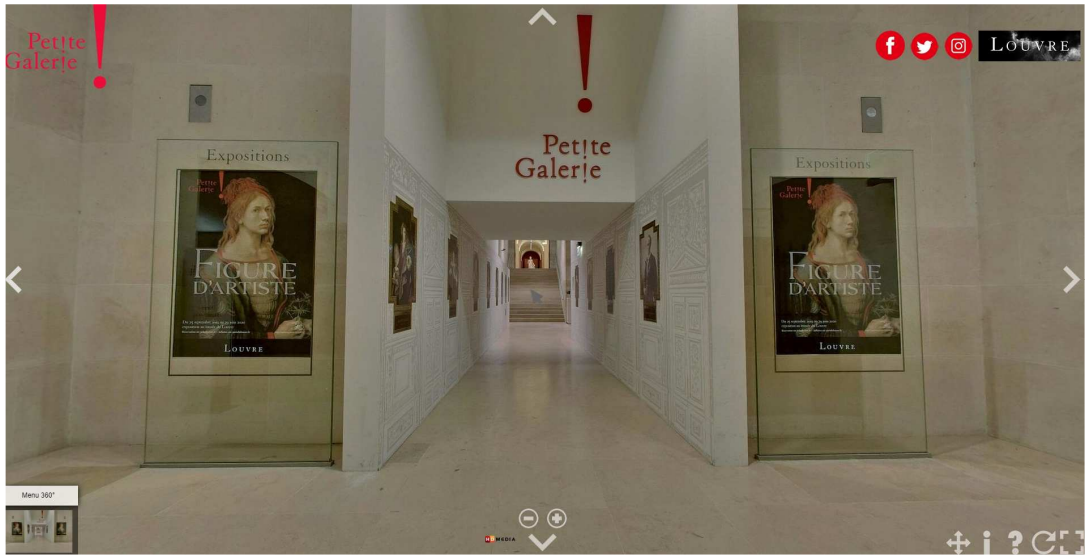
##### — 루브르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 및 갤러리 중심 온라인 전시관 개설<sup>12)</sup>

- 전 세계 관람객이 찾는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그랑팔레박물관, 세르누치 동양박물관, 캐브랑리박물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중심으로 360도 온라인 가상박물관 구축 및 전시 서비스 운영
- 대표적으로 그랑팔레박물관에서는 오프라인 ‘폼페이전’과 동시에 ‘집에서 보는 폼페이(Expo Pompéi chez vous)’ 온라인 전시를 진행함. 전시 소개 영상, VR·AR 전시, 퀴즈 등 다양한 전시 체험 제공('21.3 현재 기준 계속 운영)
- 프랑스의 우수 박물관 및 갤러리에서는 C19 이전부터 동 분야 혁신 및 미래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옴. 일례로 2019년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 VR은(앱(App), VR 콘텐츠 개발·배포) 모나리자 작품의 입체적인 감상을 도움<sup>13)</sup>

12)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5046>

13) 출처: <https://www.louvre.fr/en/leonardo-da-vinci-0/realite-virtue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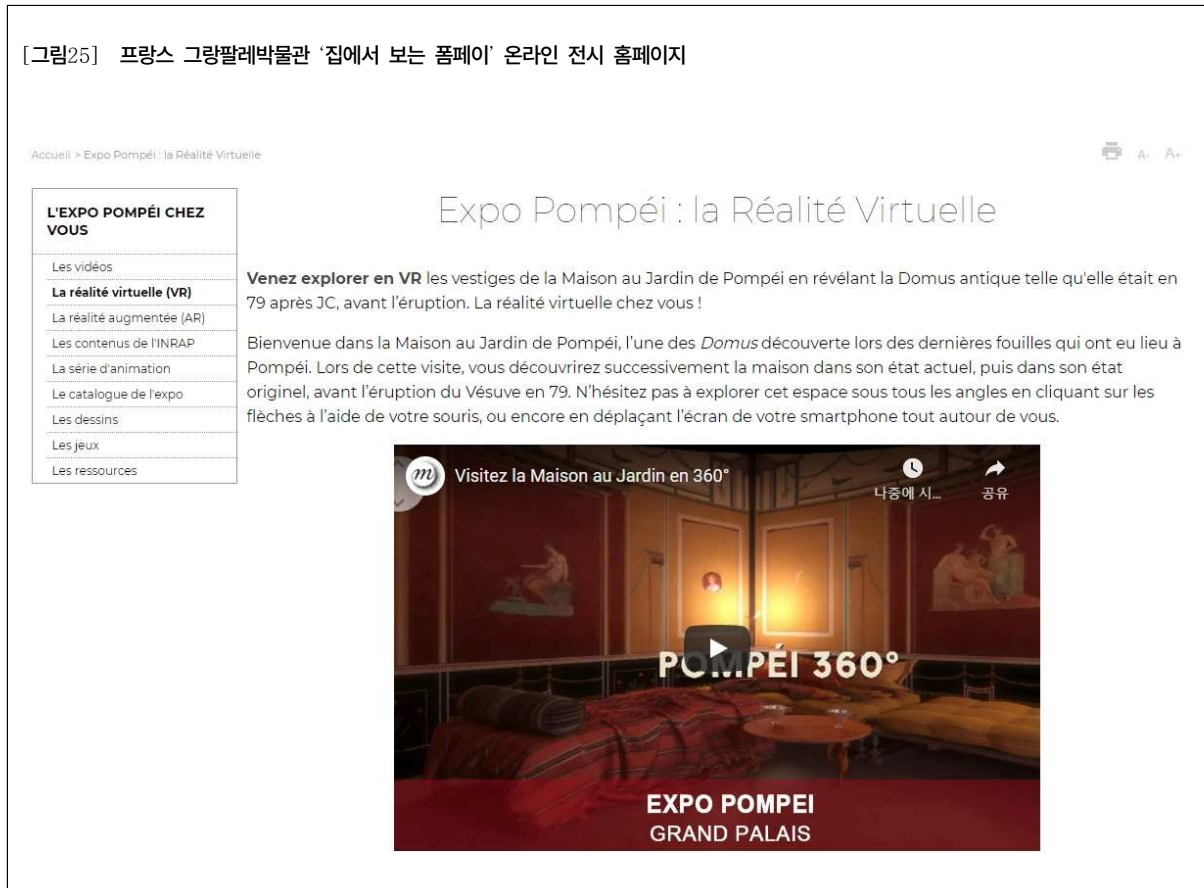
[그림24]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전시 360도 가상투어 예시



※ 출처: 루브르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louvre.fr/en/visites-en-ligne>



[그림25] 프랑스 그랑팔레박물관 '집에서 보는 폼페이'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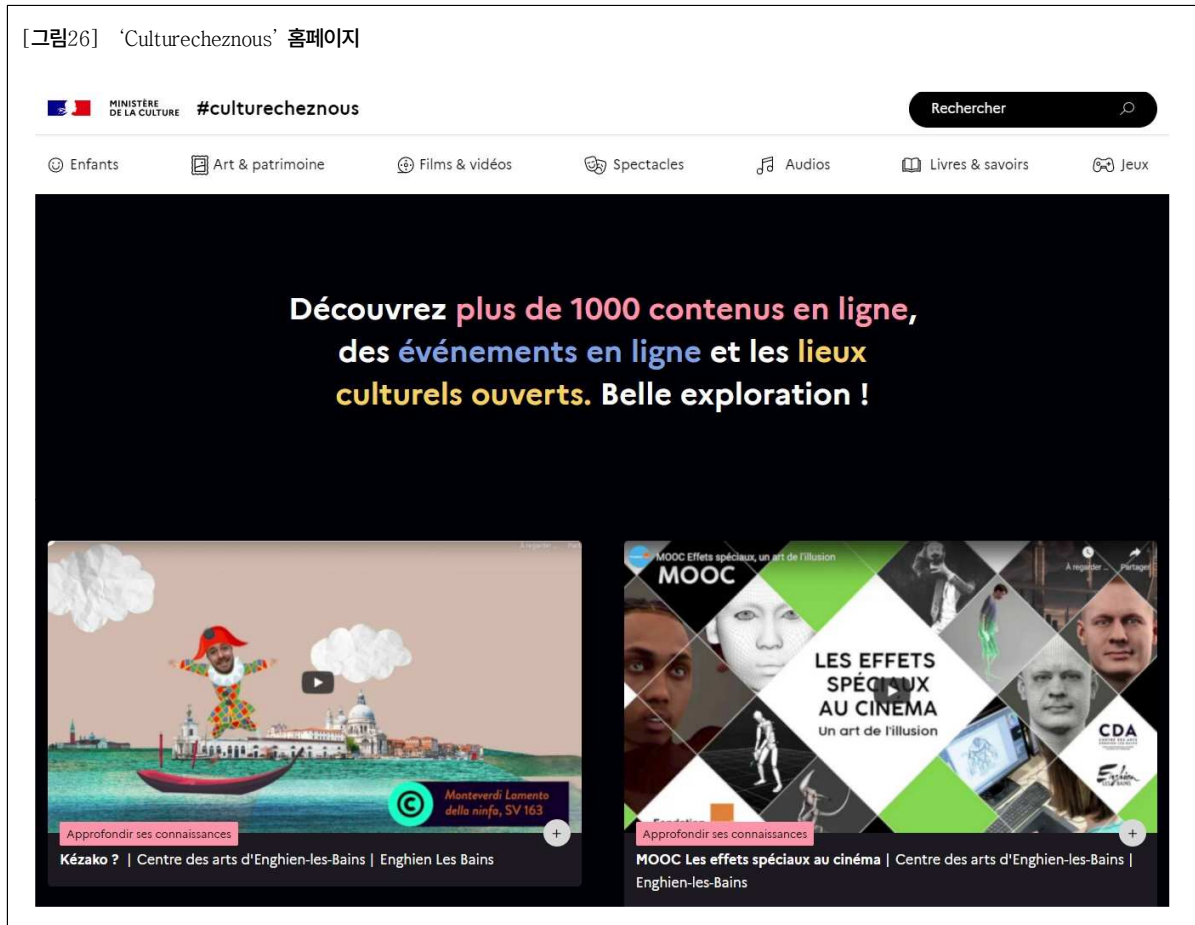
※ 출처: 그랑팔레 홈페이지 <https://www.grandpalais.fr/fr/expo-pompei-la-realite-virtuelle>

## ○ '집에서 즐기는 문화(#Culturecheznous)' 플랫폼 런칭

### — C19 시대 문화예술활동 재개를 돕는 온라인 문화예술 사이트 개설·운영

- 프랑스 문화부에서는 C19 확산에 따른 이동금지령과 전시·공연장 전면 폐쇄로 문화예술 관람이 제한된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담 플랫폼 개설
- 약 1000여개 이상의 전시, 공연, 도서, 문화예술 정보 관련 콘텐츠 제공('21년 상반기 기준)

[그림26] 'Culturecheznous' 홈페이지



※ 출처: <https://www.culturecheznous.gouv.fr/>

## ■ EU

### ○ 유럽 공연예술작품 국경 간 배포 플랫폼 지원사업<sup>14)</sup>

(Platform for the Cross-border Distribution of European Performing Arts Works)

#### — 추진 배경

- ‘2020 유럽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공연 예술 분야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극장, 무용, 서커스, 거리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진행된 프로그램
-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도 문화 및 창조적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 등 지원

#### — 개요 및 현황

- 개념: 신진 예술가를 알리고, 진정성 있는 유럽의 문화예술 작품 창작하는 문화 운영자를 위한 플랫폼
- 목적: 유럽 내 공연 작품의 초국가적 디지털 유통 촉진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
- 내용: 공연 예술의 국경 간 차원에 대한 지원
  - 제작자와 예술가, 국제적 활동이 부족한 예술가들의 이동성과 가시성 향상
  - 해외 투어, 행사, 전시회 및 축제 등을 통해 비국가적 유럽 문화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14) 출처: [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ontent/european-commission-support-performing-arts-%E2%82%AC25-million-distribution\\_en](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ontent/european-commission-support-performing-arts-%E2%82%AC25-million-distribution_en)

측면에서 유럽의 진정한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 촉진

— 청중 확대에 기여하고, 유럽의 가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가시성 제공

- 대상: 문화 및 창조 활동을 하는 그룹/단체/조직(개인 신청 불가)
- 규모 및 시기: 약 34억원(2,500,000 EUR), 2020년 7월 공모 마감

— 특징 및 차별점

- 시·공간의 제약과 1회성이라는 공연예술의 아날로그적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online streaming) 형식의 다국적 공연예술작품 디지털 보급. 확산 지원

— 평가

- 공연의 실시간 녹화 및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시청 경험의 지속성을 유지
- 가상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문화 활동의 광범위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영국

### ○ 디지털 협력 기금(Digital Collaboration Fund)<sup>15)</sup>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약과 대면 기반 (문화예술) 협력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증가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함

— 개요 및 현황

- 영국문화원 지원으로 지원금(3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 방식을 고안하고, 국제 협력과 예술 교류 환경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문화예술 분야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개인 참여 불가)으로, 한 개 이상의 영국 기관과 아래 해당국 기관 간 파트너십을 맺어 지원 가능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조지아, 가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네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페루, 르완다,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시리아, 탄자니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발칸, 예멘, 짐바브웨

- 지원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15) 출처: <https://www.britishcouncil.org/arts/digital-collaboration-fund>

• 지원금 내용

	지원금	내용 및 예시(선정대상)	지원규모(공통)
1	연구개발 지원금 (총 9개 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가상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연구개발 지원</li> <li>• 프로젝트 범위 지정, 아이디어 테스트, 연구원 고용 기반 향후 탐색 이슈 또는 주제 조사</li> </ul> <p>(선정 사례1-공연) ‘International Playable Theatre Lab (국제놀이연극랩)’, 영국+북마케도니아+멕시코 극단 : 3개국 디지털 레지던시 작가가 디지털 공간에서 인터랙티브 연극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 1-2만 파운드 (최대 약 3천만원), 4개 단체*3개 그룹</li> <li>• 대규모 : 4-5만 파운드 (최대 약 7천5백만원), 5개 단체*3개 그룹</li> </ul>
2	새로운 협력 지원금 (총 10개 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 및 다른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신규 협력 프로젝트 지원</li> <li>• 연구개발 과정 포함 가능</li> </ul> <p>(선정 사례2-문학) ‘Imagination, Pleasure &amp; Activism (아프리카 문학공간에서의 대화)’, 영국 왕립 아프리카 소사이어티+가나 작가 프로젝트+나이지리아 Kabafest+케냐 AfroQueer : 파트너 축제 프로그램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웨비나, 팟캐스트, 온라인 워크숍을 통한 아프리카 및 디아스포라문학 맥락에서의 즐거움 체험</p>	
3	재도약 지원금 (총 8개 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및 물리적 창작물의 디지털/가상 창작물 변환 지원</li> </ul> <p>(선정 사례3-시각예술) ‘Digital SUPERPOWER!’, 영국 Umbrellium(기술 활용 도시재생 디자인 기업)+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축제 Fak’ugesi+짐바브웨 Youth for Innovation : 3개국 젊은 여성들이 모바일 앱 기반 신체 제스처 매핑 도구를 사용해 예술을 창작하며 본인의 환경 속에서 안전 및 보안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p>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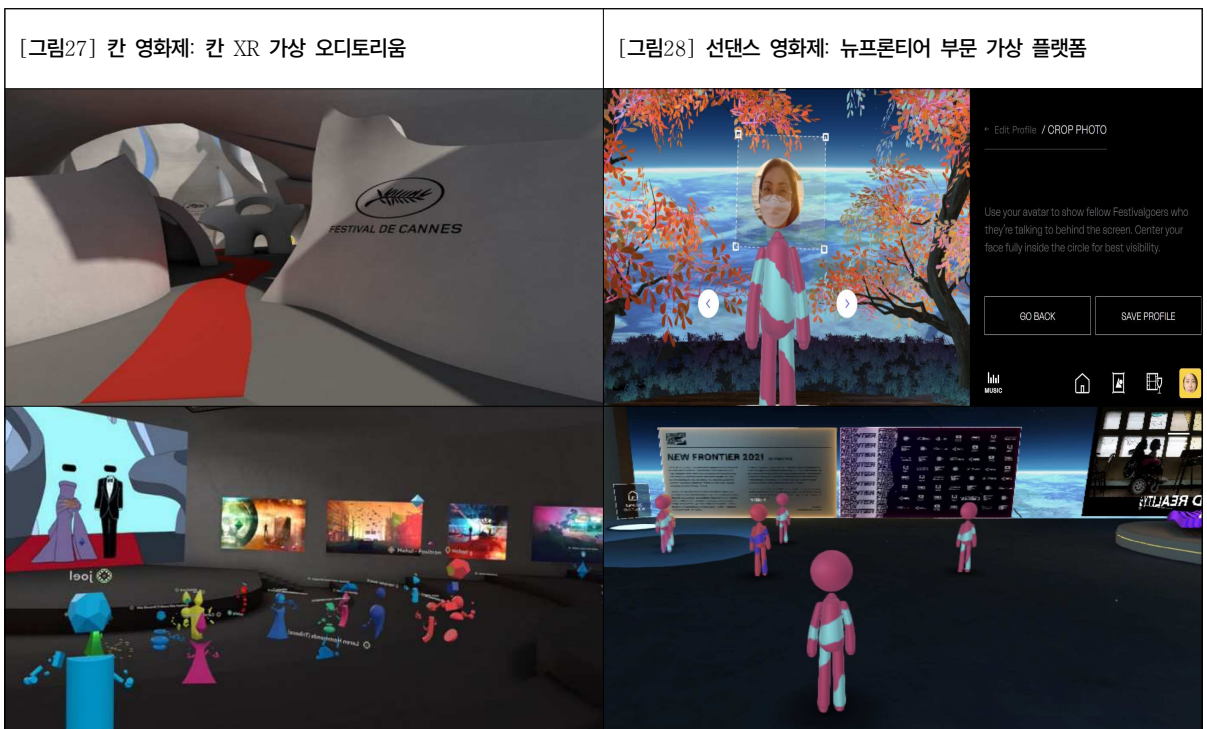
○ 현실과 가상연계 온라인 참여·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확대

— 현황 및 주요 사례

- 세계적인 축제 및 이벤트를 중심으로 C19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 및 보다 실감나는 쌍방향 참여를 돕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 사례 확산
- 일례로 프랑스 칸 영화제, 캐나다 선댄스 영화제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부문에서는 행사 기간 중 온라인 및 VR 작품작을 가상공간에서 감상하고 아바타를 통해 참여자 간 소통까지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플랫폼 개설, 손쉬운 접근성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참여자 간 원활한 작품 감상 및 상호 소통이 가능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고, C19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킴

\*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닐 스티븐슨(Neil Stephenson)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 1992)’에서 처음 등장,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함.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

(※ 출처: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Trend.do?cn=SCTM00186640>)



※ 출처: <https://noproszenium.com/on-being-virtually-at-cannes-xr-feature-e1d9b5adc5fc>,  
<https://newfrontier.sundance.org/> 에서 직접 참여 및 이미지 캡처 © 한하경



## 2) 예술분야 디지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방안 마련

### ■ 영국

#### ○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Digital Culture Network)

##### — 추진 배경

- 문화예술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인프라, 자원, 리더십 교육의 범위가 있고, 디지털 체험이 관객의 문화 참여 방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 참여와 실천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영국 문화부 <문화는 디지털이다(Culture is Digital)\*>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됨



\* <문화는 디지털이다> 보고서: 영국 문화부에서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 문화 분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관객의 참여와 다양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효용성을 중점 제시함

##### — 개요 및 현황

- 목적: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조언 제공, 디지털 기술 개발, 새롭고 흥미로운 파트너 간 연계를 돕기 위해 ACE가 2019년 6월 신설한 네트워크·교육 지원 체계
- 중심 기조: '디지털에 관한 한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수 없는 질문을 격의 없이 던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것을 추구함
- 기간 및 예산: 3개월 파일럿 기간 시행 후 2019년 6월에 신설 총 2년간 110만 파운드(약 16.5억원)투입
- 성과: 700여개 이상 문화예술 단체 지원(1,000여개 지원 사례). 개인 및 단체에 디지털 기술 관련 지식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sup>16)</sup>
- 전담팀: 테크 챔피언(Tech Champion)  
9명의 디지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교육 그룹으로, 예술인 및 온라인 방문 관람객의 접근성, 사용성 편의를 돕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함

16) 출처: Arts Council England(2020) *We Are One: A year in the life of the Digital Culture Network*.

[그림31] 영국 ACE, '테크 챔피언'



“코로나19 - 이 전례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 출처: ACE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org.uk/developing-digital-culture/digital-culture-network>

- 홍보: 주요 교육내용 전달 및 확산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 \* 링크: <https://www.youtube.com/c/DigitalCultureNetwork>

[그림32] 영국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 역대 성과



※ 출처: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digitalculturalnetwork.org.uk/about/about-the-network/>



[그림33] 영국 ACE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 제공 6가지 온라인 팁



※ 출처: ideatest 홈페이지, <https://ideatest.org.uk/6-online-tips-from-digital-culture-network/>

## ■ 호주

### ○ ‘Arts and creative industries: digital support’ 페이스북 그룹 운영

— 호주 예술위원회에서는 라이브스트리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품을 온라인에서 발표·재현하는 기술, 스킬, 통신 수단 등이 없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디지털 지원 솔루션의 첫 단계로 점담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함('21.3월 현재 기준 3,400명 회원 가입 중)

#### • 운영 규칙

- 참여 규칙
  - 온라인 관객 대상 예술 콘텐츠 제작 관련 문의
  - 온라인 관객 대상 창작성과 프로모션
  - 온라인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창작성과 공유
- 지향하는 가치
  - 다양성에 대한 접근성
  - 상호존중, 전문적이고 진정한 참여
  - 현재 예술위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사용한 태그 지정
  - 친절함과 열린 도움
- 금지된 행동
  - 기금 지원/모금, 스팸성 공지, 정치적 의사표현

[그림34] 호주예술위원회 '예술과 창조산업: 디지털 지원' 페이스북 그룹 메인 화면



### Arts and creative industry: digital support

비공개 그룹 · 멤버 3,4천명

※ 출처: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669197597161146>

## 3) 그린딜을 위한 예술과 기술 융합 기반 신규 정책사업

### ■ EU

#### ○ 신유럽 바우하우스(The New European Bauhaus, 이하 바우하우스)

##### — 예술과 기술 융합 기반 문화사업을 통한 그린딜(Green Deal)\* 구현 목표

- 배경: 미와 실용성을 추구하며 디자인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20세기 바우하우스 운동\*\*에서 착안함. 모든 사회, 경제운동은 고유의 이미지와 메시지가 있으며, 그린딜과 같은 체제 변환 운동 추진 시에도 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을 혼합한 고유의 미학이 요구됨
- 취지: 유럽 그린딜을 매력적, 혁신적, 인간 중심적 방식으로 되살리고자 함. **지속가능성, 포용성, 미학에 기반하여, 그린딜에 대해 사람들이 녹색 변화를 느끼고, 보고, 경험함으로써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함**

[그림35] '신유럽 바우하우스' 계획 발표(21.01.18)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YFojt2zi9w&t=39s>

“차세대 EU가 유럽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EU를 순환경제의 리더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경이나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유럽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 -

- 내용: 유럽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한계를 극복과 그린딜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미적 철학을 중심에 두고 인간 중심 문화와 미래적 삶에 대한 설계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환경·경제 부양 정책

\* EU 그린딜: 2050년까지 역내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

\*\* 바우하우스 운동: 1919년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예술 주도 사회운동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동시대 사회적 도전과 연계해 산업과 굿디자인(미와 실용성에 기반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킴

[그림36] '신유럽 바우하우스 운동' 모토



Our conversations will shape our tomorrow



※ 출처: [https://europa.eu/new-european-bauhaus/index\\_en](https://europa.eu/new-european-bauhaus/index_en)

기 간	내 용
중점 모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necessity)는 아름다울 수 있음</li> <li>• 좋은 디자인이 삶을 개선함</li> <li>• 좀 더 아름답고 인간적인 세상</li> </ul>
실행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산업계를 위한 창의적, 실험적 랩 및 결합지점으로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파급효과 기대</li> </ul>
역할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회</li> <li>• 문화예술 공간</li> <li>• 실험 랩</li> <li>•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li> <li>• 국제 네트워크 및 전문가 허브</li> <li>•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만나는 거점</li> </ul>
대상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가, 예술가, 학생, 과학자, 공학자, 디자이너</li> <li>• 기타 기여를 원하는 사람들</li> </ul>
시기 (When) 및 계획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2021~2022): 지속가능성, 문화예술에 중점을 둔 5개 프로젝트 진행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 문화예술과의 결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자연 건축 소재</li> <li>• 에너지 효율성에너지 효율성</li> <li>• 인구통계학</li> <li>• 미래 지향형 운송수단</li> <li>• 자원 효율적인 그린 디지털 혁신 등</li> </ul> </li> <li>• 2차(2023): 바우하우스 프로젝트 및 유럽 내외 네트워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및 창조 공간 구축·운영</li> <li>• 바우하우스 지식 허브 구축·운영</li> </ul> </li> </ul> <p>: 기술 및 내용 파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이해관계자 및 시민 참여</p>

\*\*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궤도에 빨리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시사점]

-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해 예술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다양한 매체기술을 활용한 신규 지원사업 확대/강화 검토 필요. 특히 C19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지원유형을 다양화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 적극 모색 필요
- 온라인 예술 콘텐츠의 경우, 예술가 창작 기회 제공 측면 외에 관객의 입장까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 수요자인 관객의 관점에서 물리적 제약(소외지역, 지방,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공간 폐쇄 등) 초월한 일상 속 예술 관람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 창작·보급 및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 수립해나갈 필요
- 코로나 이후 시대 예술가/단체의 디지털 기술 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예술가별 대표 장르, 창작단계, 기술 사용 수준별 온라인/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컨설팅 및 교육 체계 마련 시급. 나아가 온라인 및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물 관련 저작권 및 초상권, 유료화, 수익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선제적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이 외에도,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초래한 C19 및 유사 재난상황으로 시야를 넓히고, 사람 중심의 미래사회 설계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예술의 역할을 적극 모색하고 예술과 환경문제를 연계한 신규 정책을 고안할 필요

## 라. [네트워크] 상호소통 및 협력 강화 지원 정책

### 1) C19 대응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 ■ 유럽 연합(EU)

##### ○ Creative Unite

- 기능: C19 영향 대응 문화창조산업분야 지식 공유 플랫폼
- 추진 배경

- 문화 및 창작 분야에 대한 COVID-19 영향과 관련하여 EU 차원에서 현재의 도전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문화 부문의 “EU 회원국 플랫폼” 출시를 제안(2020년 4월)  
※ EU 문화부 장관회의에서 혁신, 연구, 문화, 교육 및 청소년 위원장인 Mariya Gabriel이 제안

##### — 개요 및 현황

- 개념: 문화 및 창조적 분야와 관련된 모든 이니셔티브 및 정보·솔루션 공유 플랫폼 EU
  - 공동 기금으로 조성한 “Creative FLIP Pilot”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0년 5월 시작
  - Goethe Institute와 European Creative Hubs Network(ECHN)가 공동으로 추진
  - 단일 공간에서 다수의 기존 리소스와 수많은 관련 네트워크 및 조직에 액세스 가능
  - 함께 솔루션을 찾도록 노력하는 공동 작성 및 업로드 가능한 온라인 공간 제공

분 야	내 용
대상 분야	음악, 축제, 시각예술,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문화 분야
제공 정보	유럽/국제 콘텐츠 정보 검색, 플랫폼에서 홍보되는 다양한 종류의 이니셔티브(예 : 스토리, 우수 사례)를 탐색 가능, 모범 사례 소개
설문조사/자금조달/협력기회	EU의 새로운 문화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찾을 때 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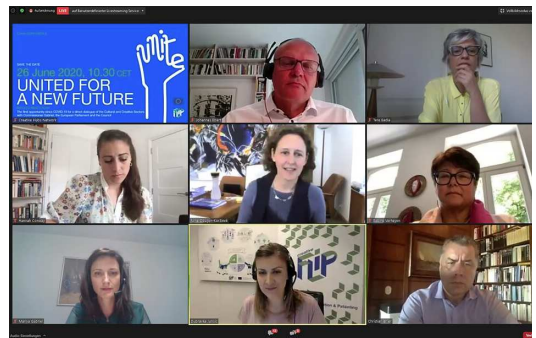
## — 목표

- C19 관련 정보를 수집,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창조산업부문 간 교류 촉진

[그림37] Creative Unite 플랫폼: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 출처: <https://creativesunite.eu/>



## — 특징

- C19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관련 집적화된 정보를 제공
- 이를 통해 예술가, 관련 기관, 정책수립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간접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가치창출을 지원하는 모델 추구

## ■ 영국

### ○ Covid-19 Support(영국예술위 코로나19 지원 게시판)

- 기능: C19 관련 정부 및 예술위 등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최신 정책 정보 제공 및 자문, 신규 지원 사업 공지 플랫폼(영국예술위 홈페이지에 추가 신설)
- 구성

주 메뉴 구성	세부 메뉴 구성
최신 뉴스(Latest news)	최신 정책 정보 제시
C19 정부 위기대응	복구 대응/ 정부와 일하기
가능한 지원	정부 가이드(Gov. guidance)/ 기관 및 개인 지원/ 지원금 수혜자 현황/ 테크 챔피언이 도와드릴까요?
긴급 대응 기금	기금 소개/ 기금 운영 소개
질의 응답	오전 9시~오후 5시 이메일 질문 답변 시행

## Covid-19 support

The latest advice, guidance and emergency funding measures the Arts Council, government and several external organisations have put in place to address the Covid-19/coronavirus crisis.

### Latest news

Last updated: 23 February 2021

Get the details of how lockdown will ease for performing arts and how we're administering the government's Culture Recovery Fund.

#### Performing arts roadmap

The Government has set out the principles for easing lockdown in England from now until June 2021. Get the details about the roadmap to ease restrictions for performing arts between April - June 2021 and what that means for you.

[VIEW THE ROADMAP](#)

## Support available



Government guidance  
[FIND OUT MORE](#) >

Support for organisations  
[Find out more](#)

Support for individuals  
[Find out more](#)

Support for current funding recipients  
[Find out more](#)

Can a Tech Champion help?  
[Find out more](#)

※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covid19>

## 2) 유관기관 및 지자체 간 연계 기반 대응 지원방안 마련

### ■ 핀란드

- 교육문화부, 예술진흥센터, 문화재단 및 민간기관의 출연금 조성을 통해 프리랜서 예술가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 확보

### ■ 스위스

- 연방 문화부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긴급 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마련. 특히 행사 취소, 연기, 단체 폐쇄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주 정부가 보전(손실의 최대 80%)하고 연방정부가 주 정부 지급액의 50%부담



#### [시사점]

- 코로나 이후에도 예술분야 내 정보소통을 돕는 예술지원정보 플랫폼 지속 운영 강화 필요
- 유사 재난상황 대응방안 마련 시, 예술지원체계 내에서 문체부-예술위-지자체(지역문화재단) 3개 주체 간 구체적인 역할 설정 및 협력증진 방안 검토 필요

## 마. [정책 분석·평가] 설문 및 연구·조사 활동

### 1) C19 관련 문화예술 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평가·분석

#### ■ 피해 현황 파악 연구/설문조사 진행

- 국제기구(UNESCO, OECD), 각 국가별 민·관 예술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C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동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함. 이를 코로나19 관련 실질적인 현황 파악 및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함.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 및 가치를 국제적 연대에 힘입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함

####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 문화창조분야(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이하 CCS) C19 대응 정책 보고서 발행(20.09.07)

OECD C19 정책 대응: 문화 충격 - C19와 CCS\*(Culture Shock: COVID-19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보고서<sup>17)</sup>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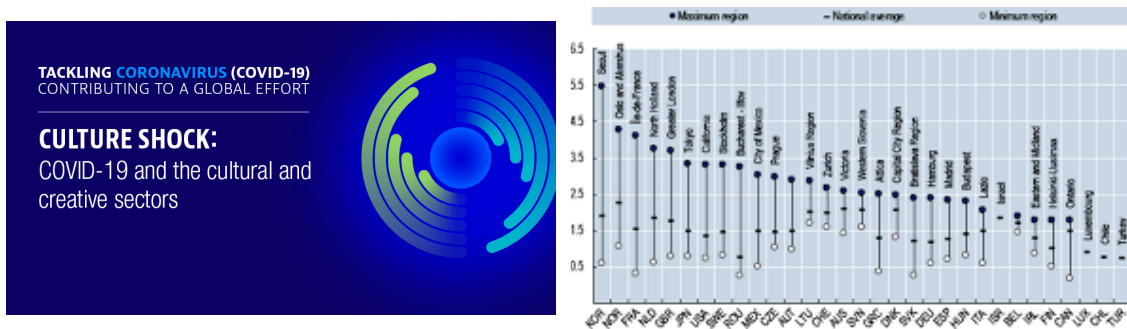
- (CCS 분야 고용 위기) 관광 분야 중 가치기반 영역인 CCS\*가 C19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OECD 지역 전체 고용의 0.8~5.5%가 위험에 처함
- (부익부 빈익빈 심화 양상: 경제적 어려움 직면 vs 대기업 중심 온라인 플랫폼 수익 집중) 수입 급감에 따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았고 임금감소 및 공급자의 가치사슬 파장을 동반한 해고를 유발함. 반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은 높은 수요로 수익 발생. 하지만 이러한 수익이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됨
- (CCS 당분간 지속 악화 예상) C19로 인해 예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요인의 결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경향의 지속 악화 예상. 유통채널 위기와 투자감소 외에도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관광 감소, 소비자 구매력 감소, 문화예술 분야 공공·민간 자원감소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
- (CCS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 지원) CCS 사업 모델 및 고용 형태에 맞지 않는 공공 지원 계획의 부적절성. 특히 고용 및 수입 지원책은 CCS에서 불안정하지만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새로운 표준적이지 않은 고용형태일 경우(예: 프리랜서 또는 파트타임과 프리랜서가 혼재된 경우) 지원 자격이 안 맞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가속화된 디지털화로 인한 빠른 혁신) VR, AR 등 신기술과 결합된 대규모 디지털화는 시장의 잠재력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경험, 보급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 특히 안정화되지 않은 무료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의 자본화를 위해서는 분야 내 디지털 기술 부족을 해결하고, 대도시 외 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디지털 접근이 라

17) Travkina, E., SACCO, P.(2020), *Culture Shock: Covid-19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Paris: OECD.

이브 문화체험과 관련 직업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

- (문화, 교육, 보건 분야 간 협업이 가져다 줄 미래 혁신) 가속화된 디지털화를 경험한 문화와 교육 분야는 C19 위기의 영향에 기초하여 전략적 보완책을 개발할 수 있음. 디지털화는 지역 및 지역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안고 있기 때문. 또한 C19로 인한 사회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정신적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드러났고 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을 자본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코로나 이후 문화의 창조적 잠재성의 다분야 연계 활용: 지역경제 회복 및 환경문제 등) 도시와 지역에서는 CCS와 문화적 참여를 그 자체 및 경제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동력으로서 여길 것. CCS는 이미 경제적 동력이자 혁신의 근원이며, 나아가 기후변화와 인구 노령화로 인한 복잡한 도전에 대한 인식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CCS: OECD 회원국별 동 분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활동을 가리킴. 이와 관련, 본 보고서에서는 박물관, 공연예술, 라이브 음악, 축제, 영화 등 영역을 문화창조분야로 정의함

[그림39] 정책보고서 표지 및 분석 내용



※ 출처: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ulture-shock-covid-19-and-the-cultural-and-creative-sectors-08da9e0e/>

## ■ 미국

### ○ 창조산업 분야 피해 현황 조사

- ‘잃어버린 예술: C19가 미국 창조경제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Lost Art: Measuring COVID-19’s Devastating Impact on America’s Creative Economy)’ 보고서 발행(20.08.11)
  -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창조산업 피해현황 연구조사 보고서
  - 연구 기관: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사회과학 연구 싱크탱크)
  - 저자: 창조 도시(creative city) 및 창조 계급(creative class) 연구로 저명한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와 마이클 세먼(Michael Seman) 교수 공동 연구
  - 주요 내용

- 창조산업 분야에서 230만개 이상 일자리와 월 평균 소득 총합 740억 달러(약 87조원) 손실 발생. 이것은 미국 전체 창조산업 직업의 30%, 월 평균 임금 총합 금액의 15%를 차지.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공연 분야의 직업에서 약 1/3의 임금 고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됨
- 정책적 제언으로 ① 정부의 재정적 지원 촉구 및 ② 창조산업 종사자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뉴딜 프로그램 고안 필요성 제시

[그림40] '잃어버린 예술' 보고서 표지(좌) 및 창조산업 분야 별 실직 현황('20,4-7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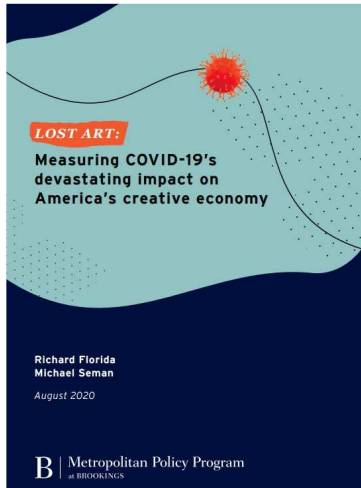


Table 2. Estimated cumulative losses for the creative industries by cluster, April to July 2020

Cluster	Jobs	% of Total Jobs Lost	Sales (billions)	% of Total Sales Lost
Fine and Performing Arts	1,383,224	50.00%	\$42.50	27.00%
Design and Advertising	365,334	13.20%	\$18.70	11.90%
Publishing	252,820	9.10%	\$16.30	10.40%
Crafts	232,429	8.40%	\$12.00	7.60%
Motion Picture, Television, and Radio	193,550	7.00%	\$33.10	21.10%
Creative Technology	164,108	5.90%	\$22.00	13.90%
Architecture	77,069	2.80%	\$3.40	2.20%
Fashion	69,271	2.50%	\$4.50	2.90%
Culture and Heritage	29,978	1.10%	\$4.60	3.00%

Source: Estimates by authors based on data from Emsi (see appendix for further detail)

※ 출처: <https://www.brookings.edu/research/lost-art-measuring-covid-19s-devastating-impact-on-americas-creative-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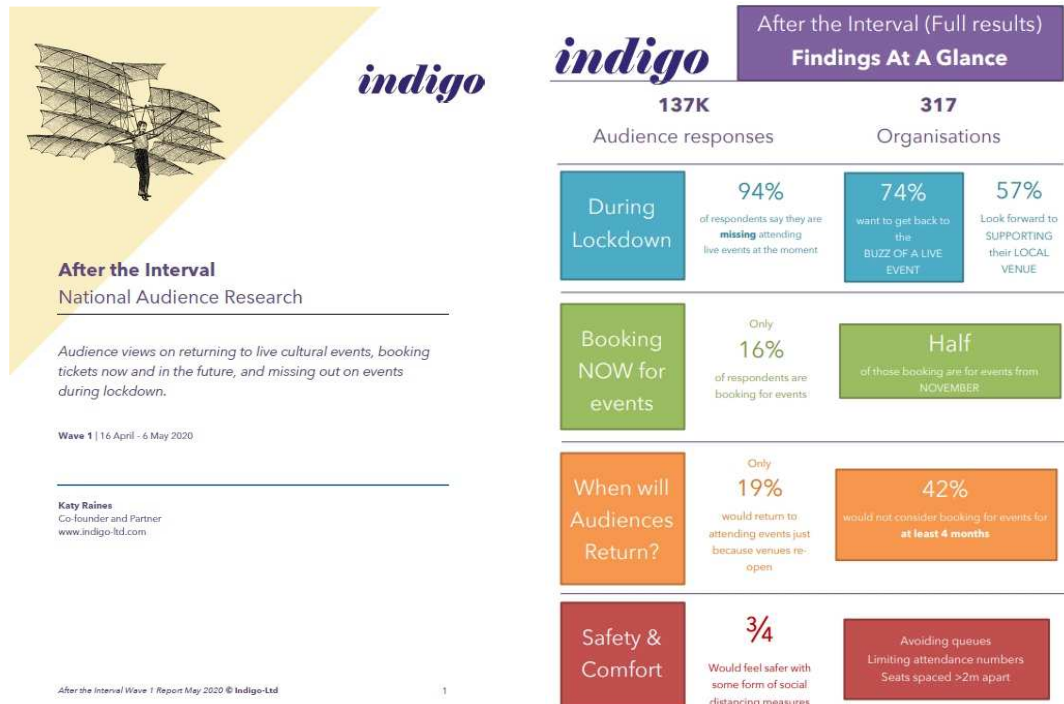
## ■ 영국

### ○ 관객 설문조사

- 조사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폐쇄 이후, 관람객 대상 예술활동 참여 의향 설문조사 시행
- ① 영국 예술위원회 '전국관객조사(After the Interval-National Audience Research)'
  - 조사 기간: 2020.4.16.-5.27(6주)
  - 조사 기관: 영국 Indigo(협력: 영국예술위원회)
  - 응답자: 공연장 전면 폐쇄를 경험한 잉글랜드 관객 137,000명, 예술기관 317곳
  - 설문 문항 내용: 문화예술 이벤트 예매 현황 및 관람 재개 시기, 선호 이벤트(장르) 및 장소, 재개관 시 안전감을 느끼는 요소 등
  - 주요 내용

- 대체로 라이브행사에 불참하고 있으나(94%), 이 중 다수가 라이브행사의 복적거림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74%), 지역 내 공연장 지원을 희망함(55%)
- 현재는 공연 예매가 저조하지만(16%), 11월 부터는 이 중 50%가 예매를 진행할 예정
- 행사장이 문을 열더라도 매우 적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고(19%), 이 중 42%는 최소 4달간은 공연 예약을 고려하지 않을 것
- 응답자의 3/4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 안전함을 느낌(예: 줄서기 금지, 관객 인원 제한, 좌석 2m 이상 띄어 앉기)

[그림41] 영국 예술위원회 설문문항 표지 및 주요 시사점



※ 출처: Raines, K.(2020), After the Interval: National Audience Research, Indigo-Ltd.  
<http://s3-eu-west-1.amazonaws.com/superoool-indigo/After-The-Interval-Wave-2-Report.pdf>

— ②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전국관객조사(After the Interval-National Audience Research)’

- 조사 기간: 2020.6.15.-7.22(한 달)
- 조사 기관: Thrive(협력: 영국 Indigo,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 응답자: 공연장 전면 폐쇄를 경험한 북아일랜드 관객 3,900명
- 설문 문항 내용: 문화예술 이벤트 예매 현황 및 관람 재개 시기, 재개관 시 안전감을 느끼는 요소 등
- 주요 내용

- 85%가 공연 예약을 안 해 참석률이(15%)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예매를 재개할 시기는 2020년 하반기에 42%, 2021년은 21%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63%가 하반기 이후로 예상함. 이 중 58%가 장소에 대한 안전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복귀가 가능하다고 답함
- 안전하게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족석 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줄 서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이 외에 위생과 관련해서는 손소독제 배치와 공연장 방역절차와 현황 공개 순으로 응답함
- 응답자의 54%가 온라인 문화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33%는 전면폐쇄 이후부터 참여함. 예술가들이 집에서 제작한 공연 및 풀버전 공연 영상의 온라인 플랫폼 내 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공연 참여가 어려울 경우 80%가 온라인 행사 관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중 65%가 온라인 공연 지불의사가 있으며, 이 중 55%는 실황 공연보다 저렴한 티켓 가격을, 10%만이 같은 가격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공연 참석이 어려울 경우 야외 공연 참석에 대한 의향은 96%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응답자의 78%가 지불의사가 있으며, 53%가 실황 공연과 같은 가격 지불의사가 있다고 답해 공연장 실황 공연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42]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설문문항 표지 및 주요 시사점



※ 출처: <https://wewillthrive.co.uk/audience-insights/reports/after-the-interval-act-2>

## ■ 미국

### ○ Americans for the Arts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Covid-19 Impact Survey)’

#### — 설문조사 개요

- 시행 기간: 2020. 4월부터 계속 진행('20.4.21 기준 예술가(단체) 약 11,000여명 응답)
- 진행 목표: C19로 인한 예술가의 실질적인 피해 측정 및 창조 분야의 복원력과 관대함을 강조하고 미국 내 500만 동 분야 종사자들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rtist Relief(아티스트 릴리프)\*의 일환으로 설문조사 및 신속한 결과 발표
  - \* 아티스트 릴리프: 중소기업 7개 지원단체가 예술가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20.3.8~6.23), 설문조사 외에도 C19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예술가들에게 각각 5,000달러(약 570만원) 지원 및 실시간 정보제공 진행
- 설문 문항 내용: C19 경제적 피해 양상 및 규모(수입 손실 분야 및 금액, 향후 소득 총당 계획, 예술창작에 C19(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영향, 온라인 플랫폼 예술창작/보급 활동 및 수익 현황, 커뮤니티 연계 예술창작활동 및 비용발생/처리 부분, 및 향후 의사 등

• 주요 내용

- 응답자의 95%가 C19로 인한 수입 손실 경험. C19로 인해 응답자 중 62%가 완전 실직상태가 되는 등 심각한 재정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80% 응답자가 위기 이후 복구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고, 연평균 개인 수입 감소액은 27,103달러(약 3천만원)으로 집계됨
- C19 시기를 창조분야가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① 프리랜서도 가능한 실업보험, ② 무이자 사업 대출/대출 탕감, ③ 식량 및 주택 지원, ④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⑤ 프리랜서도 이용 가능한 유급 병가 순서로 응답함
- 한편, 어려운 시기임에도 다수의 동 분야 종사자들은 창작공간을 지역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고(75%), C19 이후 회복 지원에 자신의 창의성(creativity)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함(82%)

[그림43]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 표지(좌) 및 주요 발표결과(우)



※ 출처: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news-room/press-releases/10000-artists-and-creative-workers-report-widespread-job-income-loss-due-to-covid-19>

## 2)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 예술정책 설계를 위한 연구·조사 \_ 광의적 관점

### ■ UNESCO

####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 — 주요 내용

- UNESCO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중심으로 향후 10여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UN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적극 이행에 협력사와 이해관계자를 연계하여 기여하고자 함. 17개 목표에 '문화'도 포함



[그림44] UN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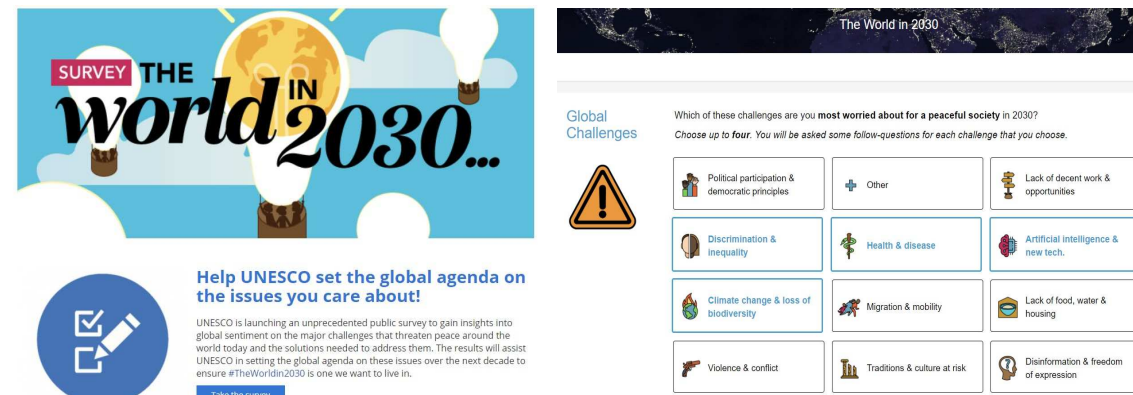
“문화는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다.  
문화는 2030년 어젠다 달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문화가 인간 및 사회-경제적 발전, 양질의 교육, 사회포용,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지속가능성, 평화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출처: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247785en.pdf>

## ○ The World in 2030 설문조사 진행

### — 설문조사 개요

[그림45] UNESCO ‘The World in 2030 설문조사’



※ 출처: <https://en.unesco.org/news/theworldin2030-help-unesco-set-global-agenda-issues-you-care-about>

- 시행 기간: 2020. 5월 ~ 9월(10개 국어로 설문 진행)
- 진행 목표: 앞으로 다가올 주요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일반대중의 의견과 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와 관련한 세계적 의제를 정의하여 평화로운 203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대비하고자 함
- 향후 계획: 본 설문결과는 유네스코 '22-29 중장기전략(향후 10년간 로드맵) 수립에 활용 예정

### — 설문조사 주요 결과

- (4대 도전 과제) 2030년까지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당면한 4대 도전 과제로 ①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② 폭력과 갈등, ③ 차별과 불평등, ④ 식량-물-주택 부족이 도출됨. 이 중 ①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로 인해 초래될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가 매우 높게 나타남. 주요 과제의 해결책으로 그린(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국제협력 증진, 과학에 대한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림46] UNESCO ‘The World in 2030 설문조사’ 결과 \_ 4대 도전 과제



- (주요 도전 과제의 핵심 해결방안) 설문결과 ① 교육과 ② 국제 협력이 도출됨. 특히 건강, 윤리, 문화유산, 젠더 평등 증진을 위한 분석적 사고, 존중, 온라인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해결책으로 강조됨. 국제교류의 경우 강력한 세계적인 연대와 다자주의 지속적인 관련성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으나(95%가 중요함, 매우 중요함에 응답)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으로(25%만이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로 응답) 나타남

[그림47] UNESCO ‘The World in 2030 설문조사’ 결과 \_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의 핵심 솔루션 중 하나인 ‘교육’



※ 출처: <https://en.unesco.org/news/world-2030-public-survey-climate-change-and-biodiversity-loss-biggest-concern-far>

- (동시대 맥락에서의 오래된 쟁점: 기술 변화, 문화 보존 등) 신기술로 인한 도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감시, 윤리적인 문제, 사이버 전쟁, 새로운 형태의 갈등, 사이버범죄 등을 우려하였고, 윤리, 온라인 안전 및 프라이버시, 지구적인 윤리 체계,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인간적인 관점의 확산, 온라인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한편 토착민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은 전통 문화에 대한 위험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문화 및 유산 관련 교육체계로의 통합, 문화 간 교류와 다양성의 존중에 대한 증진, 젊은이들의 전통문화 참여, 문화유산 및 관행의 보호를 요구함

○ [관련 참고] 2020 로마 헌장(2020 Charter of Rome)

— 주요 내용

- ‘2020 로마 헌장’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문화생활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진행(3일간 총 11개 온라인 세션 진행)

[그림48] 2020 로마헌장 국제 컨퍼런스



※ 출처: <https://www.2020romecharter.org/>

■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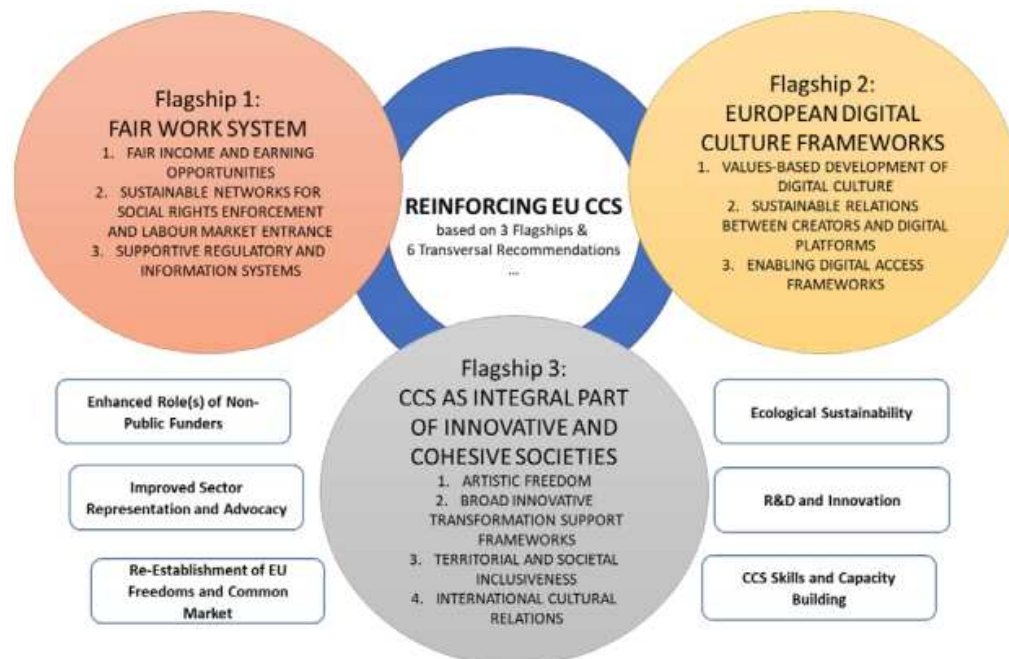
○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Post-COVID-19 EUROPE(코로나19 이후 유럽의 문화창조분야)’ 보고서

— 주요 내용

- 개요: C19 위기가 유럽 문화창조분야(Culture and Creative Sector, 이하 CCS)에 미친 영향 진단과 정책 대응현황 파악 및 코로나 이후 시대 정책방향 제언
- 연구 발주: EU 의회 문화 위원회(CULT Committee, European Parliament)
- 연구진: Isabelle De Voldere, Martina Fraioli(이하 IDEA Consult), Antonia Blau, Sina Lebert(이하 Goethe-Institut), Sylvia Amann(Inforelais), Joost Heinsius(Values of Culture&Creativity), Katarzyna ISKRA(연구 책임자) 등

## • 주요 내용

- C19로 인해 대부분의 CCS분야가 여러 분야를 통틀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특히 장소, 방문객 기반 공연예술과 문화유산 분야가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겪음  
\* [참고] 'C19가 CCS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 사슬'
- 정책 지원은 대부분 단기 긴급조치에 집중되었고, 재개나 혁신을 위한 지원이 폭넓게 진행되지 못함  
(건강, 환경, 사회적 응집력, 국제 연대, 경제 등 사회 분야에 있어 CCS의 역할 논의 미흡)
- CCS가 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구축된다면, EU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필수영역으로 작용할 것(C19가 시민 복지, 사회 혁신, 사회 응집력에 CCS 기관 및 전문가의 큰 기여를 연관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 향후 CCS 관련 혁신과 실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UN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
- 가장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CCS 강화를 위한 상당한 공적 지원 및 투자가 요구됨. 관련한 ① 3대 '주력 계획(Flagship Initiatives)' 및 ② 6대 횡단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 계획1: 공정한 노동 체계 수립
  - 계획2: 유럽 디지털 문화 체계 수립
  - 계획3: 사회 혁신 및 응집력에 중요한 필수영역으로서 CCS 자리매김
  - 횡단적 쟁점: 비공공부문 후원자의 역할 부상, 분야의 대표성 및 지지 향상, EU 자유 및 공동 시장의 재건, 생태적 지속가능성, R&D 및 혁신, CCS 스킬 및 역량 함양



\* [참고] C19가 CCS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 사슬(A Chain of Effects)

([2020년 3월] \_ 상단 그림 중 1개 노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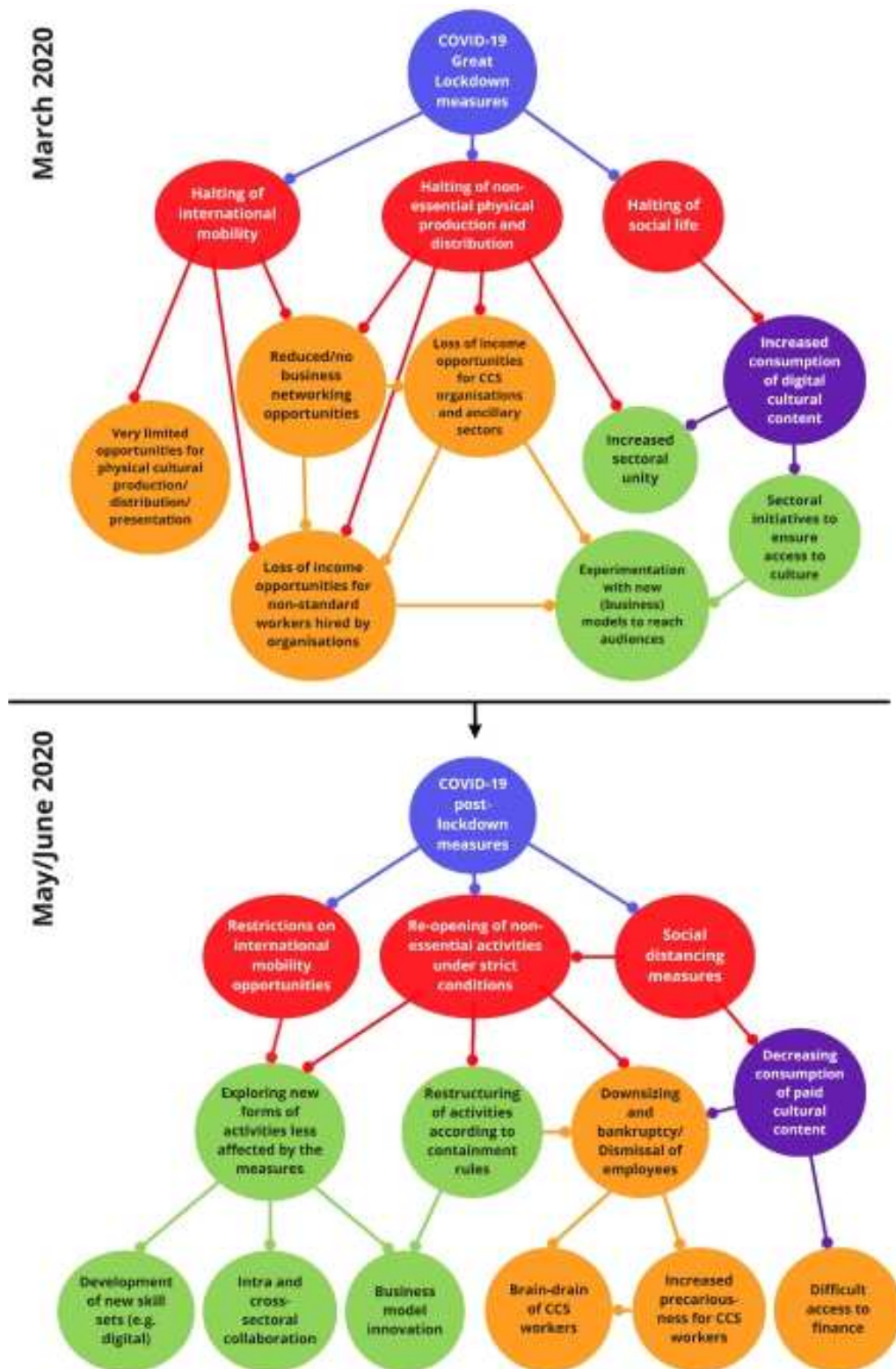
유럽 전역 대봉쇄 조치 → 사회적인 삶의 중단 → 디지털 문화콘텐츠 소비 증가 → 부문별 통합 증대 / 분야별 문화 접근성 증진을 위한 시도 → 관객과 만나기 위한 새로운 모델 실험

([2020년 5/6월] \_ 하단 그림 중 1개 노드 예시)

유럽 코로나(대봉쇄) 이후 봉쇄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유료 문화콘텐츠 수요 감소 → 축소, 부도, 고용종사자 해체 → CCS 인재유출 + CCS 인력의 조심성 증대



[그림49] C19가 CCS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 사슬



※ 출처: ISKRA, K. 외(2021),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Post-COVID-19 Europe: Crisis Eff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European Parliament.

### [시사점]

- C19 관련 설문 및 연구·조사 및 결과활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됨
- (예술가/분야 대상) 심각한 피해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 시급성을 알리고, 예술계의 현실 (다수가 프리랜서인 노동/고용 구조, 지속적인 예술활동의 대안으로서 디지털 기술/플랫폼 등)과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함
- (관객 대상) 공연 예매 현황, 복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복귀 시점 중점 파악
- (문화예술의 역할과 가치, 미래 방향 모색) OECD 연구결과에서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일상생활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역설. 특히 ‘UN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문화 포함)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설문조사(미래 도전과제 및 해결책 모색) 결과,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가장 큰 위협으로 분석됨. 해결책으로는 그린 솔루션 투자, 지속가능성 교육, 국제협력 증진 등이 제시됨.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체 사회로 시야를 넓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분야 주도의 친환경 예술운동, 국제협력 증진 노력 등 지속가능한 사회 및 예술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 경주할 필요

## 바. [정책 공유·확산]예술의 중요성 및 역할 관련 인식 확산 캠페인

### 1) 일반인 대상 예술의 가치 중요성 공유·확산 캠페인 및 축제 개최

####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 ○ WHO x Create2030 COVID-19 Arts Festival

##### — 행사 개요

- 취지: 인류 역사상 흥미로운 C19 시기에 대해 교육하고, 신화를 불식시키고, 서사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예술작품의 제작을 통해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면모를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관련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간: 20.7.26~7.31
- 주요 내용: 온라인 갤러리 가상 전시 및 ‘예술×코로나’ 관련 웨비나 행사(5개 주제) 진행  
(세부 주제-정신 건강과 예술, 청년 시인, 힙합, 예술·정책·코로나, 앞으로 나아가기)
- 행사 이후 온라인 갤러리 ‘the Solidarity Shows Virtual Art Gallery’ 런칭(이후 상시 오픈)



[그림50] 페스티벌 행사 포스터(좌) 및 상설 온라인 갤러리(우)



※ 출처: <https://www.who.int/campaigns/connecting-the-world-to-combat-coronavirus/together-at-home>

## ■ 미국

### ○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ArtsCreateHope)’<sup>18)</sup>

#### — 주요 내용

- 형태: #해시태크 캠페인
- 주요 내용: 민간단체 Americans for the Arts에서는 예술이 재난, 인종문제 등 불안과 위기상황 속에서 예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쁨과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18) 출처: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by-topic/disaster-preparedness/artscreehope>

[그림51] Arts Create Hope 캠페인 홍보 이미지



## 2) 예술가 대상 커뮤니티 연계 예술협업 가치 확산 캠페인

### ■ 미국

- 시민단체 U.S.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에서는 인권으로서 문화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참여 예술가들의 대응 자세와 방침을 역설한 ‘효과적인 예술적 대응을 위한 6가지 윤리적 헌신(Six Essential Ethical Commitments for Effective Artistic Response)’ 가이드라인 제시

[참고] ‘효과적인 예술적 대응을 위한 6가지 윤리적 헌신’



## Six Essential Ethical Commitments for Effective Artistic Response

- ### 1 COLLABORATE

*Be a supporter, not a savior. Whether in a natural or civil disaster, the answers are not within just you, they're within the community.*
- ### 2 PEOPLE ARE THE EXPERTS OF THEIR OWN EXPERIENCE

*Sharing first-person stories is one of the core practices of artistic response and one of the most intimate. One ethical principle carries through in all project frameworks: people must speak for themselves.*
- ### 3 YOU ARE ACCOUNTABLE

*In a crisis, the primary accountability is to the local community. Understanding that will help safeguard you against entering into relationships you won't be able to sustain honorably.*
- ### 4 CLARIFY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fore a project begins, make every effort to negotiate potential conflicts. Consider:*

**DECISION-MAKING STRUCTURES:** Is the artist in a "lead" role or are you seeking consensus?

**FUNDING:** Does the project generate income? If so, are you paying honoraria or stipends to participants?

**PRESENTATION:** Emergencies can heighten fear of exposure or exploitation. Ensure that participants know the risks.
- ### 5 ENSURE A RESPECTFUL, RECIPROCAL ENVIRONMENT

*Many artists set ground rules for community-based projects, offering basic agreements, then inviting participants to add parameters needed for their own comfort and well-being.*
- ### 6 BE MINDFUL OF YOUR OWN IMPACT

*When a crisis draws visiting artists from outside the affected communities, they can leave a large footprint that outlasts the emergency.*

Adapted from "Art Became the Oxygen" | [usdac.us/artisticresponse](http://usdac.us/artisticresponse)

- 1: 협동할 것 - 커뮤니티 안에서 구원자가 아닌 (주민들의) 후원자가 될 것
- 2: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임 - 1인칭 이야기의 공유는 예술적 반응의 핵심 실천 중 하나이며 가장 친밀감을 주는 요소임.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함
- 3: 예술가의 책임감(여부,범위) - 위기 상황 속 주된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는 오히려 명예롭게 지속할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됨
- 4: 역할과 책임을 명시할 것 - 프로젝트 착수 전 잠재적 갈등요소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
  - (고려사항) 의사결정 구조/ 자원/ 발표(청사진): 위기상황 속 노출, 착취 위험성 사전 공유
- 5: 상호 호혜적인 환경 보장
- 6: 예술가 자신의 영향을 염두에 둘 것 - 위기상황에서 외부 초청 커뮤니티 예술가는 지역사회에 응급상황을 뛰어넘는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음

### 3) 전 세계 대상 예술분야 긴급지원 촉구 선언 및 캠페인

#### ■ ICOM

##### ○ 박물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호기금 할당 필요성 성명 발표('20.04)

###### — 주요 내용

[그림52] ICOM 구호기금 할당 필요성 성명 게시 홈페이지



※ 출처: <https://icom.museum/en/covid-19/advocacy/statement-on-the-necessity-for-relief-funds/>

- 전 세계 주요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 박물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호 기금을 신속하게 할당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중략) “국제 박물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ICOM은 정책 의사 결정자들에게 박물관과 동 분야 전문가들의 구호기금을 긴급하게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이 봉쇄에서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19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치유 과정은 길고 복잡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배우는 비교할 수 없는 장소로서 박물관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후략)

#### ■ 유럽공연예술회의(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이하 IETM)

##### ○ 예술계 구조: 국가 정부를 향한 성명 발표(20.04)



※ 출처: <https://www.ietm.org/en/rescue-the-arts-plea-to-national-governments>

#### — 주요 내용

- C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조치로 공연예술 분야 생태계에도 악영향과 큰 위협이 초래됨. 이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국가 정부들이 취해야 할 긴급 조치를 성명으로 발표

-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이 실업 급여 및 사회적 편익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 EU 코로나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EU 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약 370억 유로 규모)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한다.
- 문화부 및 예술위원회의 기존 예산에서 벗어나 문화 분야에 대한 긴급 및 고층 기금을 조성한다. 이러한 재정기금은 C19 위기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히 전용된 다른 예산 라인의 재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모든 기존 기금 계획에 유연성을 적용하여 수혜자가 활동을 연기, 취소 또는 전환해야 하는지 또는 지원사업의 주기를 연장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예술 분야의 부흥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2020년 이후부터 투자를 확대한다.
- 국제화 예산은 지역 예술분야의 역량 강화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한다.
- 예술가의 직업, 관행,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사회적·재정적 인식,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예술가의 현재 지위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한다.
- 미래의 위기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 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라.
- 문화와 예술을 경제적·사회적 재생과 미래-변혁 전략으로 통합하고, 공감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복지를 위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사람들을 연대시키는 힘을 인정한다.

#### 4) 관계자 참여 기반 정책 의견수렴 및 공론화(토론회, 포럼 등)

- 다양한 온·오프 공론의 장 활성화: 예술가, 정책 전문가, 민간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토론회, 포럼, 주기적 온라인 채팅 등 예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 구축·운영 활성화



■ ICOM

○ 전 세계 박물관의 현황 파악 및 미래 대응 논의

— 주요 내용

- 웨비나 개최(총 3회)

	포럼 개요	주요 논의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코로나19와 박물관: 영향과 혁신, 그리고 위기 이후의 계획</li> <li>• 일시: 20.4.10, 14:00-15:30</li> <li>• 주최: ICOM, OECD 공동 주최</li> </ul>	<p>보편적 문화영역으로서 박물관의 중요성과 가치 강조 및 디지털 기술 활용 21세기 박물관의 미래 방향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9로 인한 박물관 폐쇄의 장단기적 영향</li> <li>- 새로운 혁신과 기회,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li> <li>- 단기 및 중장기 박물관 분야 지원 정책</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팬데믹 이후 박물관 재개관 준비</li> <li>• 일시: 20.6.24</li> <li>• 주최: ICOM</li> </ul>	<p>C19가 문화 기관에 미치는 세계적인 영향과 박물관에 미치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재개장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미묘한 조치에 대한 논의</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지역 커뮤니티의 박물관 강화</li> <li>• 일시: 20.8.5, 15:00-16:15</li> <li>• 주최: ICOM</li> </ul>	<p>박물관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논하며, 지역사회가 다양한 규모의 문화 기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C19 상황에서 주변 커뮤니티와 박물관 결합을 통한 생산적인 시너지는 문화 부문과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li> </ul>



■ UNESCO ResiliArt 토론회(이하 레질리아트)

○ 레질리아트 일본 토론회

— 주요 내용

- 주제: 코로나19를 초월한 문화, 예술의 힘, 창의성의 탄력회복성
- 일자: 20.05.23(온라인)
- 주최: 나라(Nara) 필름 페스티벌
- 참여 패널: 총 6명  
오드리 아줄레(유네스코 사무총장/ 인사말), 가와세 나옴(영화감독/ 사회),  
[이하 발제·토론 패널] 히라타 오리자(극작가, 연극연출자, 오사카대 교수), 베쇼 테츠야(영화배우), 미야비(밴드 '스킨' 기타리스트), 토모코 무카이야마((현대음악)피아니스트 겸 시각예술가-네델란드 중심 활동)
- 진행 순서 및 내용

구분	내용
인사말	(전체 패널 발제) 일본 창조산업분야, 문화 정책, 교육 시스템, 예술분야 종사자와 산업 지원에 대한 관련 논의 진행  • 온라인 공연 외에도 실질적인 예술계의 C19 대응방안 모색할 필요 • 위기상황 속 예술의 역할 탐색할 필요(관동대지진 등 자연재해 경험에 비춘 예술의 포용적 역할 상기) • 아시아지역 문화예술분야 내 일본의 리더 역할 상실위치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예술교육 강화 및 활성화 필요 • 문화예술로 창조경제를 이끌 차세대 육성 및 지원 필요
발제·토론1	‘앞으로, 예술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청중 질의응답	
발제·토론2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각, 어떤 형태가 필요할까?’
발제·토론3	“문화적 열망자”의 역할
발제·토론4	‘전달되어야 할 최종 사항’

[그림54] 레질리아트 일본 토론회 행사 포스터



※ 출처: <http://nara-iff.jp/overseas/470/>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 UCLG World Council 2020 - Guangzhou(UCLG 광저우 2020 세계 총회)

— 주요 내용

- 주제: 코로나 시대 국제 도시 및 지역 운동의 역할
- 일자 및 장소: 2020.11.11.-12, 중국 광저우
- 관련 논의 내용

- UCLG Dialogue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중요한 이슈로 도출된 불평등, 그린 회복(green recovery), 경제적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토론 세션 진행
- 이 중 3일차에 진행된 UCLG 문화위원회 공개세션에서는 주요 국가 도시 문화 분야 대표 참석자를 중심으로, 2020 로마헌장 프로세스, 코로나19 위기의 영향 등 2021년 계획 논의

“Agenda 2030의 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상성을(new normality) 반성하고 발생하는 도전에 문화로 대응하는 방법을 보아야합니다.” - 멕시코시티 문화 자문위원 Guadalupe Lozada

“우리는 문화적 관점에서 C19 위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특히 C19 위기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 Catarina Vaz-Pinto , 리스본 문화 부시장, UCLG 문화위원회 공동 회장

\* UCLG: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 국 1,000여개 도시 정상 등이 모여서 정보 및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기구. 매 3년마다 세계 총회, 매 2년마다 아태지부 총회 개최

[그림55] UCLG World Congress 2020



※ 출처: <https://udg-aspac.org/en/asia-pacific-commitment-perspectives-and-contribution-in-udg-council-meeting-2020/>

■ 아시아유럽재단(ASEF) 토론회

○ C19 관련 웨비나 시리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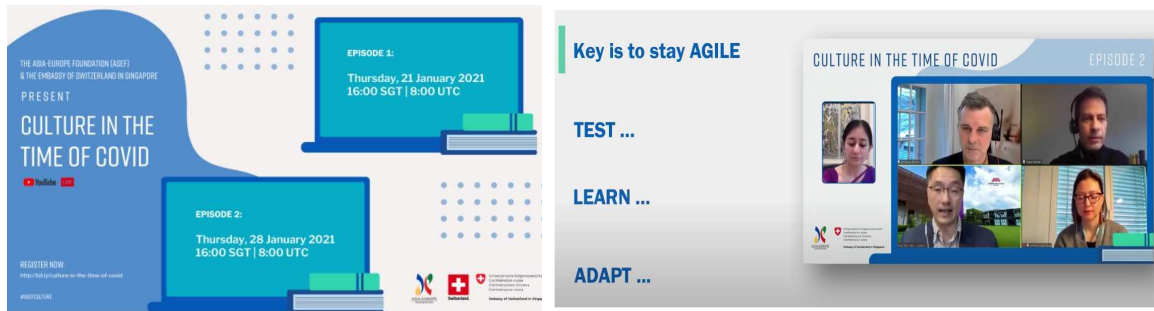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주제: Culture in the Time of Covid(코로나 시대의 문화)
- 일자: '21.01.21, 28(온라인)
- 주최: ASEF, 싱가포르 주재 스위스대사관 공동 주최
- 진행 순서 및 내용

: 예술단체 및 공공기관이 C19에 대응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응시켰는지를 공유하고, 향후 예술분야 내 문화교류와 국제협력 진행 방향을 모색함

행사 및 일자	참여자 및 내용
Episode1 ' 21.01.21	<p>(참여 패널) Diana Campbell Betancourt(큐레이터, 초국가적 예술 세계 육성에 관심) Michael Schindhelm(작가, 영화 제작자 겸 큐레이터, Theater Basel 대표 역임)</p> <hr/> <p>(논의 주제) • C19로 인한 문화적 관행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미래 역할 논의</p> <p>(토론 질문) • 문화 부문에서는 이 비상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연대정신이 존재하는가? • C19 대유행은 향후 얼마간, 문화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향후 3-4년 간 문화교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p>
Episode2 ' 21.01.28	<p>(참여 패널) Philippe Bischof(스위스예술위원회 디렉터) Yves Fischer(스위스 연방문화국(FOC) 부국장) Paul Tan(싱가포르 국가예술위원회 기획·기업개발 담당 차장) Anna Arutyunova(취리히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 담당 책임자) Anupama Sekhar(사회자, ASEF 문화부문 디렉터)</p> <hr/> <p>(논의 주제) • 문화 담당 공공기관의 C19 대응 프로그램 정책 변환 내용 논의</p> <p>(토론 질문) •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 2020년에 조우한 가장 창의적인 디지털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가? • 특히 국제문화협력의 경우 향후 3년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p> <p>(논의 내용 및 쟁점) • 온라인 무료 콘텐츠 제작 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상이한 관점   · 스위스: 단발성, 온라인 스트리밍 프로젝트, 무료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 지양   · 싱가포르: 디지털 기술 향상(digital upskilling) 지원 적극 시행. 어려운 시기 동안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교육(reskilling)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 코로나 대응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테스트, 학습, 적응 필요 • 코로나 시대 대안적 극복 방법 중 하나로 로우테크(low tech)를 활용한 디지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예술분야에 혁신을 가져다줌. 스위스에서는 페이스북 활용 기반 온라인 페스티벌(인터뷰, 토론 등)이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싱가포르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이끄는 왓츠앱(Whatsapp) 그룹을 통해 연장자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레지던시와 다른 프로젝트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모델 발굴 및 연구와 과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 • 물리적 공간의 관객은 감소할 것이므로 새로운 모델로의 변화와 수익화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정부 지원 메커니즘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 • 향후 분야를 초월한 협력과 통합이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현실을 함께 직시해 나가야 함</p>

[그림56] 토론회 주요 장면



※ 출처: <https://asef.org/projects/culture-in-the-time-of-covid/>

###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민관 예술분야 협단체를 중심으로 예술의 가치, 예술가와 커뮤니티 간 연계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확산 캠페인, 예술분야 긴급지원 촉구 선언문 발표 등이 속속 진행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의 발신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임. 따라서 예술위 차원에서(예: 코로나19대응TF 등) 예술분야를 대표하여 대국민 예술의 가치 인식재고 및 확산 캠페인을 중점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층위에서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C19 위기 현황 및 미래 대응방안을 논하는 공론화가 진행됨. 주제별 연속 온라인 포럼을 통해 열린 장에서의 상호 경험 공유 및 의견 수렴, 미래방향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발전 모색을 위해 온라인 국제 토론회를 정례화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 III. 종합 시사점

---

## 1. 주요 특징 및 차별점

### 가. C19 확산 이후 기간별(단·중장기) 대응책 마련

#### 1) 단기 긴급 지원

##### ■ 예술가/단체 대상 신속한 긴급 지원책 마련

##### ○ 문화예술산업 분야 피해 현황 조사 및 위기인식 고취

-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실시한 예술가 대상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를 필두로 분야별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타격이 극심한 문화창조분야(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포괄)의 피해 현황 진단 실시. 발 빠른 실태조사로 긴급 지원을 위한 근거 당위성 및 위기인식 확산 기반 마련

##### ○ C19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책 마련

- 약정 지원금 보장, 기 집행 지원예산 보장, 기금 지급 시기 변경 및 용도 다변화, 평가기준 완화 등 각국 별 유연한 지원금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제시됨

##### ○ C19 전후 위기 단계별 대응 가이드 마련 및 C19 관련 최신정보 제공

- 영국예술위의 경우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침(3단계 지원) 마련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함. 또한 C19 전담 게시판 ‘Covid-19 support’ 섹션을 개설하여 최신 발표 가이드, 정부 지원 정책 및 지원사업 정보, 조언 제공

##### ○ C19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지원 유형 신규 제시

-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①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 등 디지털 기술 연계 지원 신설, ② 연구 및 과정 중심 지원으로부터 C19로 중단된 사업의 재개 지원 등 지원 유형을 다각화하여 C19 시대 대응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 대표적인 예로 2021년 신설된 영국문화원 ‘디지털 협력 기금’이 있음

#### 2) 중장기 지원 방안 제시

##### ■ 취약한 문화예술 고용·창작환경 진단

##### ○ 열악한 고용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강화 필요성

- OECD는 관광 분야 내에서도 문화창조분야가 가장 C19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 특히 프리랜서 등 불안정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창조분야의 고용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책의 미비를 지적하며, 사각지대를 포용할 수 있는 신규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독일 등 각 나라별 동 분야 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으로 피해 규모 완화에 노력을 기울임

■ 중장기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 강화

○ 최장 48개월 지원 국제협력 지원사업 운영 강화

- EU ‘크리에이티브 유럽’ 지원사업(7년 주기, ‘21년부터 2회 차 진행)의 경우 당초 예정한 중장기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식 온라인 회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대대적인 재원 확충으로(이전 대비 36% 증액) 중장기 지원책을 지속 강화해나감

## 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노력

### 1) 국제기구 및 국가 차원

■ 일관성 있는 메시지 발신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C19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일상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문화예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본질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및 공론화 진행. 유네스코 ‘레질리언트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문화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동 분야의 가치 및 중요성, 국민의 일상회복 및 사회 재건에 있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 확산에 주력함

## 다. 중앙정부 주도의 위기대응 협력 네트워크 체계 운영

### 1) 중앙정부 중심 위기대응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영향력과 네트워크 체계를 겸비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

○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이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중점

- 영국 문화부의 ‘문화 쇄신 TF 및 실무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국가적 방향에 맞춰 2020년 5월에 중앙 부처 중심의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문화부 장관을 의장으로 부장관 5명,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전담 TF 및 8개 분야 실무그룹 운영
- 창조산업 분야별 안전한 C19 지침 개발과 C19 이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돕는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미션으로 C19 회복 전략 제시

## 라.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대응 가이드 마련

### 1) 위기대응 체계를 기준으로 한 세부 대응 가이드 적시

■ 분야/시설/대상별(예술가, 관련 지원 스태프, 관객 등) 세부 대응 가이드 제공

○ 세분화 된 가이드 마련으로 각 분야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전 세계 각국에서는 안전한 전시·공연장 운영 및 재개관 준비를 위한 세부 안전 가이드 수립에 중점을 둬. 일례로 전시분야 대표 국제 협회의인 ICOM에서는 박물관 보존/보안 강화 및 재개관 준비



용 가이드를 다양하게 제공함. 영국 문화부의 경우 문화 채신 TF 중심으로 공연예술 분야 5단계 로드맵, 신규 가이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가이드 마련에 앞장섬. 동 TF에서는 47개 코로나 보안 재개장 가이드를 마련(2020년 10월 기준)

- 더불어 독일을 선두주자로 안전한 공연장 가이드 마련을 위한 과학적 실증 연구를 진행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C19 시기에도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에 노력을 기울임

## 마.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체질개선 및 차세대 수요 대응

### 1) 디지털 기술 연계 창작/플랫폼 및 기술역량 강화 지원 신규 확대

#### ■ 디지털 기술과 예술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경향

##### ○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예술창작 지원 강화

- 디지털 기술과 동 분야의 미래 혁신 추진 동력이 결합된 온라인 및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 신규 제시
-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의 돌파구로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창작활동 및 교류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함

#### ■ 예술가/예술분야 디지털 역량 함양 중점 지원

##### ○ 경쟁력 강화 및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 예술가/단체의 디지털 역량 함양 및 견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신규 운영
- 영국예술위의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Digital Culture Network)'는 디지털 기술과 이커머스 전문가 그룹 '테크 챔피언'을 꾸려 연간 700개 기관, 1000여건의 지원성과를 냄. 또한 구글아트앤컬처와 같은 외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이벤트 진행

### 2) 주요 주체로서 관객의 역할 재조명

####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관객의 중요성 증대

##### ○ 관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관객 참여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 관객 대상 문화예술 공연 관람 현황, 향후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복귀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이처럼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관객을 주요 핵심 주체로 여기고 C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모색
- 관객 참여 및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 디지털 감상 플랫폼 창작지원 확산: 주요 국가/ 문화예술기관 지원사업 및 규모 있는 국제행사(칸 영화제, 선댄스영화제 등 참여자 중심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등에 힘입어 일반인 대상 작품 감상을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 3D 가상공간에 관객 아바타와 상호작용 플랫폼이 더해져 쌍방향의 참여를 돕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유형의 관객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 확산

###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타분야 연계 선순환적 예술정책 신규 모색

■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신규 예술정책 방향 모색 시도

○ 미래 사회/세대를 위한 예술정책 고안

- ‘EU 그린딜(Green Deal)’, ‘UN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 타 분야를 연계한 신규 정책이 다수 발표됨. 일례로 EU에서는 예술의 미학과 기술 간 결합을 통한 그린딜(Green Deal)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신유럽 바우하우스(The New European Bauhouse)’ 정책을 발표함. 또한 EU 의회에서는 CCS 분야 ‘3대 주력 계획/ 6대 횡단적 쟁점’ 로드맵을 설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CCS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속 예술정책의 자리매김 필요

- 반면,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에 문화예술·산업 분야를 포함한 정책 설계 필요성에 대한 지적 다수

## 2. 결론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C19 대응가이드 및 지원책 마련 강화

■ 위기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지원책 신설

- 위기상황 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연한 지원책의 구체적인 고안 및 제도화 필요
- 지원사업 변경 운영 방침에 대한 신속한 공지 및 홍보 동시 진행 필요

■ 예술위 자체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기관 차원의 위기대응 방향 가이드로서 위기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예술위 누리집 내 C19 전담 게시판 운영 필요: 예술위 차원에서 C19 관련 예술분야 대응 정책과 지원정보의 신속하고 직관적인 파악을 돕는 문화예술 분야 C19 전담 코너 운영 필요. C19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sup>19)</sup>를 볼 때 (문화예술 지원정보 제공 ‘아트누리’ 포함) 정보공유 기능을 집중 강화해 나갈 필요

■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조건의 예술가에 대한 신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심각한 C19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자격 요건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예술가(프리랜서, 단기계약 및 프리랜서 혼재 등) 대상 지원사업 신설 검토 필요

### 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 확산 필요

■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일관된 메시지 발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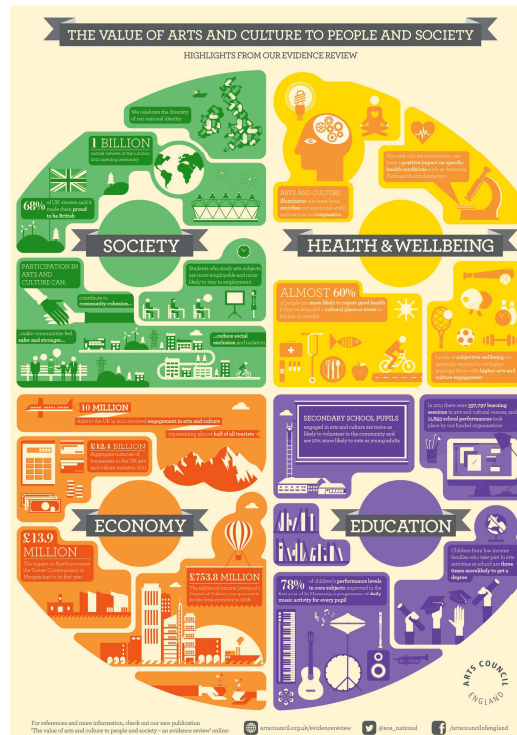
- C19 시대 피해해진 국민 일상에 활력과 위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예술의 가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철학과 방향 정립 및 이의 대국민 확산이 요구되는 시점임
- 전 세계적으로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 외에도, 사회, 경제, 교육, 건강 및 심리적 기재로 작용할 수

19) 문학분야 창작인 481명 설문조사 결과(20.08.10) C19 긴급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1%로 나타남  
※ 출처: 엠브레인퍼블릭(2020), ‘코로나19 문학분야 피해 관련 설문조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있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

- 예술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창작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풍성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적극 일조할 필요

[그림57] 예술의 사회적 가치 다이어그램



※ 출처: 영국예술위원회(2014)

## 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C19 대응 컨트롤타워 수립 필요

### ■ 문체부 중심 신속하고 유연한 C19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보건정책 준수 기반 일관성이 있는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돕는 문체부 중심 C19 대응 컨트롤타워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문화예술·산업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기관, 민관 관계자 중심 대응체계 구성)

## 라.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대응 가이드 수립 필요

### ■ C19 대응 컨트롤타워 주도 세부 가이드 수립 추진

- 문화예술 각 분야 상황(예: 공연장, 전시장)에 부합하는 세부 가이드의 수립으로 유연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을 돕고, 정상화시기를 앞당길 필요

## 마.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예술정책 외연 확대 필요

### ■ 디지털 기술 연계·활용 지원 강화를 통한 예술생태계 역량 증진 필요

-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예술분야 융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신설과 융합 창작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 C19 시대를 맞아 물리적인 제약 극복 및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나아가 첨단기술의 발달로 변화하는 관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술가 창작역량 제고 기대. 다만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시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최우선에 둔 예술 중심적 관점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 예술활동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서 관객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

- C19 시대 예술활동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관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일상적 문화활동으로 복귀하는데 관객의 의향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진행될 필요
- 디지털 기술 활용 쌍방향적 소통 기반 예술창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콘텐츠분야의 경우 광화시대(2년간 400억원), 전국 소재 국립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실감콘텐츠 지원(연간 500여억원)을 통해 대폭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예술가/예술분야 특화 지원책이 미흡한 상황. 이에 따라 관객 참여형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이 점층적으로 강화될 필요

### ■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타 분야 연계 선순환적 예술정책 모색 필요

- 이번 C19 위기 관련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경각심이 확산되는 추세. 이에 따라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 미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신규 예술지원 사업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짐. 이에 따라 환경 및 사회 전 분야와 연계한 예술창작 지원정책을 신규 고안할 필요
- C19 대응 사회정책 수립 시 국민 일상의 활력소로 작용하는 예술 정책이 같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짐.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관계부처 등과의 연계 협력 추진을 통해 예술정책의 새로운 자리매김 필요. 나아가 국민 일상권과 다양성이 담보된 미래 지향적 국가정책 설계에 기여할 필요

## 참고문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2020), ‘영국예술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자료).
2. 해외홍보문화원(2020),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2.
3. Adelman S. A., 류정식 역(2020),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스태프와 기획자를 위한 예술 이벤트 재개장 국제 가이드(For The Event Safety Alliance Reopening Guide)”,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Arts Council England(2019), *Shaping the next ten years: Finding Report*, Manchester.
5. Arts Council England(2020), *Let’s Create— Strategy 2020 – 2030*, Manchester.
6. Arts Council England(2020), *We are one*.
7. DCMS(2020), DCMS Museums and Galleries Sector Coronavirus bulletin. July: Museums & Cultural Property COVID-19 Response Mailbox.
8. EU Press corner(2020), A New European Bauhaus. Bauhaus EU Factsheet 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189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1894).
9. European Commission(2020), Announcement A New European Bauhaus: op-ed article by Ursula von der Leye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ctober).
10. Florida, R., & Seman, M.(2020), *Lost Art: Measuring COVID-19 ’s devastating impact on America ’s creative economy*, (August), DC: Metropolitan Policy Program at Brookings.
11. IDEA Consult et al.(2021),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Post-COVID-19 Europe: Crisis eff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ebruary). Brussels: European Union.
12. KEA(2019), *Market Analysis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Europe: A sector to invest in*. Luxembourg.
13. National Museum Directors’ Council(2020), *Coronmavirus (COVID-19) NMDC Good Practice Guidelines for Reopening Museums After July 4th 2020*. London.
14. OECD(2020), *Culture Shock: COVID-19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July), Paris: OECD.
15. Ontario Museum Association(2020), *Guidance for Museums Reopening After Closure due to COVID-19*.
16. Raines, K.(2020), *After the Interval National Audience Research*, (May). London: Indigo-Ltd.
17. Thrive(2020). *After the Interval Survey: Insights from Act 2\_Weeks 1-6*. (August).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 [부록] 해외 예술지원기관의 C19 대응현황

### - IFACCA 회원국을 중심으로 -

#### ■ 개요

- 본 자료는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이하 연맹)에서 공유한 코로나 19대응 브리핑 노트(Briefing Note: Responses to COVID-19, 2020.3.30.)를 정리함
-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문서, 국제교류부(20.07), 'IFFACA 회원국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 브리핑 노트 구성: ①기금의 용도변경 및 신규기금 편성, ②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긴급 경제 지원, ③사업 운영 변경, ④기존사업 요건 변경, ⑤코로나 19 영향 평가, ⑥문화예술 분야 참여

#### ■ 기금 용도 변경 및 신규 기금(Redirected and New Fund)

국가	주요 내용
호주	호주문화예술위원회는 당 회계연도 (2020년 6월 30일 결산)의 가용 미 출자금 전액 용도 변경하고 즉시 구호 기금으로 제공, 신규 프로그램에 약 5백만 달러 (280만 유로, 약40억 원)를 투입
칠레	칠레 문화·예술·유산부는 기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서 투자 목적을 변경, 150억 칠레 달러 (1,620만 유로)를 저작권료 지급, 문화 콘텐츠 증진, 피해 문화 공간 및 단체 보호 지원에 사용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부는 문화부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1,200억 콜롬비아 달러 (2,680만 유로) 지원 결정. 코로나 위기로 가장 피해가 큰 고령 예술가와 문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 콜롬비아 달러 (1,780만 유로, 약250억 원)의 구호 기금을 확보
영국	영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지원 9천만 파운드 (1억 유로), 비 국립 포트폴리오 기관 지원 5천만 파운드 (5,590만 유로), 창작자 및 문화 근로자 지원 2천만 파운드 (2,240만 유로, 약 315억 원. 1인당 약 375만원까지 지원신청 가능) 등 문화 분야 개인 및 단체 지원을 위해 1억 6천만 파운드 (1억 7,870만 유로, 약 2400억 원)의 긴급 대응 패키지를 발표
독일	독일 문화부는 경제·재무·노동부 및 정부와 함께 문화, 창작, 미디어 산업을 위한 500억 유로 규모의 구호 패키지를 구축. 이 패키지에는 운영 보장을 통한 소기업 지원, 개인 생활환경 보장, 개별 법적 조치를 통한 고통 경감 등의 조치가 포함. 또한 긴급한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긴급 보조금과 자영업자 및 소기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임대료 긴급 대출 등 총 500억 유로 지원 예정



국가	주요 내용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9개 목표를 수립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사회 장관은 북아일랜드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예술 분야의 1백만 파운드 (110만 유로)를 지급결정
뉴질랜드	뉴질랜드 문화예술위원회는 용도 변경된 1,150만 뉴질랜드 달러 (625만 유로)와 450만 뉴질랜드 달러 (250만 유로)의 신규 자금으로 구성된 1,600만 뉴질랜드 달러 (870만 유로) 투자를 포함한 긴급 대응 패키지 1단계를 발표
노르웨이	노르웨이 문화예술위원회는 티켓 판매 및 참가비 수입 감소 및 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부가 할당한 3억 노르웨이 크로네 (2,570만 유로)로 문화 산업 보상 제도를 운영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 기금 중 3천만 노르웨이 크로네 (260만 유로)를 기 완료된 사업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별도 보조금 제도에 배정함
싱가포르	싱가포르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 사회 청년부가 할당한 160만 싱가포르 달러 (1백만 유로)를 지급 중. 3월 26일,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보전 및 기술 향상, 디지털화 지원을 목적으로 5,500만 싱가포르 달러 (3,480만 유로)의 추가 지원 패키지를 제공예정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공연 및 행사 취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관, 단체 및 개인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 부문에 5억 스웨덴 크로네 (4,500만 유로, 약 630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배정
스위스	스위스문화예술위원회 Pro Helvetia는 연방 문화부 및 여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문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금 및 손실 보전 2억 8천만 스위스 프랑 (2억 6,440만 유로)을 비롯한 긴급 조치 패키지추진중. 본 기금의 목적은 스위스 문화산업에 대한 영구적 피해를 방지하고 스위스의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며 행사 취소로 문화예술 산업에 미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임
미국	미국 국립예술기금은 코로나 경제지원법에 따라 7,500만 달러 (6,740만 유로)를 지급할 계획. 예술이 국가 경제에 8억 7,700만 달러 (7억 9,060만 유로)를 기여하며 510만 개의 일자리를 부양한다는 점을 인정한 기금 배분임. 국립예술기금은 미국 전역의 비영리 예술 단체에 기금을 지급해 이러한 단체들이 강제 폐쇄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개인 및 단체(기관)에 대한 긴급 경제 지원(Emergency Financial Support for Individual and Organisations)

국가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3천만 아르헨티나 페소 (42만 유로)를 문화 분야에 대한 긴급 자금으로 할당. 또한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 강화 프로그램과 문학 프로그램, 장학금, 경연, 보조금 및 매출을 지원하는 국립 예술 기금에 대한 투자를 긴

국가	주요 내용
	급 증액.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파될 콘텐츠를 개발할 예술가 고용을 위해 720만 아르헨티나 페소 (100,400 유로)를 배정할 계획
덴마크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보조금 기준을 1만 덴마크 크로네 (1,340 유로)로 낮추겠다고 발표
영국	개인: 예술가, 창작자, 프리랜서들을 위해 300억 원(2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약 375만원(2,500 파운드)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 (분야 : 전장르, 복합예술, 박물관 실무, 도서관 활동 등) NPO: 약 1,345억 원(9천만 파운드)을 조성했으며 최대 9천만 파운드 지원. 신청 지원금에 상한은 없으나 기관들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만을 신청해야 함
핀란드	핀란드예술진흥센터는 문화예술 분야에 첫 긴급 지원금으로 150만 유로(약21억 원)를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 이 긴급 기금은 교육문화부(50만 유로), 예술진흥센터(10만 유로), 핀란드 문화 재단(50만 유로) 및 Jane and the Aatos Erko 재단, Saastamoinen 재단, Svenska 문화재단, Jenny and Antti wihuri 재단(각 10만 유로) 등 민간 기관의 출연으로 조성됨 코로나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위한 단기 보조금으로 주로 사용될 계획
프랑스	문화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가-작가들을 위한 조치를 발표.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제도를 예술가-작가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모든 예술가-작가들이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 보완 조치 및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가 및 작가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월부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권고 및 지원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 3월 9일, 위원회는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 용자를 비롯한 코로나 19 피해자 긴급 지원 기금을 시행함
멕시코	멕시코 문화부는 문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가 및 지역 창작자들을 지원에 주 문화 협회들의 재원 중 최대 1백만 멕시코 페소 (38,000 유로)를 배정하기 위해 (전국 기준 총 3,200만 멕시코 페소 (120만 유로) 멕시코 전역에의 문화 장관 및 대표들과 국가 협약을 체결함. 또한 문화 프로그램 제작에 최대 20만 멕시코 페소 (7,606 유로), 문화 전용 시설 복구 또는 정비를 위해 최대 1백만 멕시코 페소 (38,000 유로)를 지원하는 Life to the cultural infrastructure 프로그램과 문화 건설 프로젝트 재원 조달 및 문화 활동 전용 시설 설비 확충에 최대 5백만 멕시코 페소 (19만 유로)를 지원하는 Strengthening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위한 공모 추진. 또한 비디오 및 오디오 편집 전문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용 모바일 앱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신청자를 선정하여 2만 멕시코 페소 (760 유로)를 지원하는 With you in the distance: Art Movement at Home에 대한 공모를 추진함
뉴질랜드	뉴질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긴급 대응 패키지로 1,600만 뉴질랜드 달러 (890만 유로)를 책정. 초기 투자금 450만 뉴질랜드 달러 (250만 유로)는 기존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예술가, 창작자, 예술 단체 및 기관 회복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 창작 및 전문 개발, 홍보 및 배포를 비롯해 코로나 19를 고려한 신작 제작 또는 기존작 재구성을 지원하는 예술 연속성 지원금 (최대 5만 뉴질랜드 달러)과 소득과 기회 급감, 불확실한 미래로 고전하고 있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기 발표된

국가	주요 내용
	정부 지원에 신청한 예술가 및 창작가, 예술 집단 및 그룹을 위한 긴급 구호 보조금 (인당 최대 1만 뉴질랜드 달러)이 패키지에 포함.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 취소로 수입이 없어진 프리랜서 창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백만 파운드 (220만 유로) 규모의 Creative Scotland Bridging 보조금, 영화 산업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하는 150만 파운드 (170만 유로) 규모의 Screen Scotland Bridging 보조금, 향후 수개월 간 개인 및 단체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5만 파운드 (56,000 유로)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활동을 지원하는 Sustaining Creative Development 등 세 개의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
싱가포르	싱가포르문화예술위원회는 두 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통해 문화 사회 청년부가 배정한 160만 싱가포르 달러 (1백만 유로)를 지급 3월 26일,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보전 및 기술 향상, 디지털화 지원을 목적으로 5,500만 싱가포르 달러 (3,480만 유로)의 추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세 개 영역을 명시함 - 주요 극단 및 선도적 예술 단체가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의 역량개발 제도를 강화해 예술 단체 및 예술가, 실무의 기술 심화 및 전문 개발 지원 -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 역량 구축, 디지털 예술 플랫폼 확대 등을 위한 디지털화 노력 강화
스위스	스위스문화예술위원회 Pro Helvetia는 연방 문화부 및 여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문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금 및 손실 보전 2억 8천만 스위스 프랑 (2억 6,440만 유로)을 비롯한 긴급 조치 패키지를 마련. 금번 조치에는 문화 단체 및 창작 실무자, 예술가를 위한 긴급 보조금, 비영리 문화 단체의 유동성 유지를 위한 무이자 융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한 긴급 보조금 등이 포함, 문화 단체 및 창작 예술가는 행사 취소 및 연기, 극단 및 단체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주 정부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의 최대 80%를 보전 받을 수 있음. 연방 정부가 주 정부 지급액의 50%를 부담. 음악 및 연극 분야 단체들은 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지원금 형태로 지원 예정

#### ■ 사업 운영 변경(Servive Disruptions and Operational Changes)

국가	주요 내용
호주	호주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당면한 위기 대응과 문화예술 분야 보호에 단기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기 개시되었거나 개시 예정이었던 투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
캐나다	캐나다문화예술위원회는 추가 공지 시까지 중단 기간에 돌입. 이 기간 동안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연방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 또한 기한을 연장하고 공개 행사에 대한 기금 지원을 보류했으며 지원금 수혜자들이 행사를 연기하도록 할 것
칠레	칠레 문화·예술·유산부는 3개월 간 예술가 및 작품의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는 문화기금 부문을 3개월 간 중단한다고 발표. 이는 국내외를 이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기존 공공 기금은 곧 발표될

국가	주요 내용
	디지털 콘텐츠 배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 지원 체계에 재배정될 예정
영국	영국문화예술위원회는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향후 수개월 간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또 국가 복권 사업 지원금,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Grassroots Music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당분간 신규 지원 신청 및 미결 지원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예정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문화부와 보조금 수령 기관들은 비상사태 종료 1개월 이후 시점(2020년 5월 1일 예정)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일시 중단. 신청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이 지원 사업을 수정, 철회 또는 실행하도록 할 계획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문화예술위원회는 3월 26일 목표일부터 3주간 전국적인 봉쇄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 지원을 중단
웨일즈	웨일즈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신규 기금 지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 위원회는 향후 수 주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때 변경사항을 공지할 계획. 또 즉각적 위기 대응에 노력을 집중하고 심사 프로세스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20년으로 예정됐던 5개년 투자 심사를 1년 연기

■ 기존 지원사업 요건 변경(Revised Conditions for Existing Support & Reporting)

국가	주요 내용
호주	호주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 지원 대상 단체와 개인에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함. 관객 성과지표 달성 요건을 없애고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연기 또는 간소화하며 기금 지원 용도와 결과를 다변화하고 사업 일정을 연장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원 기금을 임금, 임대료, 공과금 등 필수적인 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캐나다	캐나다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및 국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여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4개월간 중단. 자격을 상실한 활동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신청자의 연간 신청 상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또 기 수령한 지원금에 출장비가 포함된 신청자나 취소가 필요하거나 기금 미사용 분이 있는 공개 행사의 경우 최종 지원금 보고서에 코로나 19가 기금 지원 활동에 미친 영향과 기금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한다는 조건으로 기타 지원 적격 경비로 사용하도록 함. 위원회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지원금 환급 정책을 완화함. 주요 기금 지원 단체들은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과 행사, 활동을 대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작품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을 다루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보고 기한도 유연하게 적용. 뿐만 아니라 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도 완화함
덴마크	덴마크문화재청은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연간 기금 지급을 앞당김

국가	주요 내용
영국	영국문화예술위원회는 NPO 지급 조건을 완화했으며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앞당길 계획 또 코로나 19로 사업 지원금을 수령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지원 조건을 완화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문화부는 소득이 없어진 창작 예술인을 지원하고 최저임금과 EHIF 보험을 6개월간 보장하기 위해 창작인 및 협회 법에 따른 지원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기준을 확대함
그루지야	그루지야 교육·과학·문화·스포츠부는 문화 증진 기본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했으며 현 상황을 반영해 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아일랜드	아일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기금 지원 약정을 모두 이행할 것이며 지원 수혜 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약정, 특히 예술가에 대한 지원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지원금의 90%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요 활동/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개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 위원회는 추가 공지 시까지 Travel and Training Award를 중단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간주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검토할 것. 이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것
멕시코	멕시코 문화부는 작품 발표일자에 관계없이 예술가들과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함
뉴질랜드	뉴질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유연하고 민첩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진행 중, 진행 예정, 신청 처리 중인 모든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2019/2020년 약정한 모든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2019/2020년에 대한 지원 잔액을 긴급 사안으로 지급하고 차기 연도 (2020/2021년) 계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단 지원 수혜 예술 단체들은 예술가 및 프리랜서와의 계약 사항을 최대한 이행해야 함
노르웨이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금 수혜자가 3월 5일부터 4월 말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활동의 취소와 관련하여 행사 계획에 사용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단, 영수증과 보고서를 구비하여 경비 지출 내역 보고 필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 지원 활동 취소, 축소, 일정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기 약정한 모든 지원금 지급을 이행할 것. 위원회는 모든 기금 수혜 기관에 예술가 및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요청

국가	주요 내용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문화예술위원회는 공개행사 관련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지원금 용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위원회는 기존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조정, 연장에 대한 상세 공지를 발표
스웨덴	스웨덴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프로그램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
웨일즈	웨일즈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지정 지원 기관에 대한 기금 지원 조건을 최소 3개월 완화,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율중. 또 위원회는 기금 지원 활동의 취소, 축소, 일정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경비 보전을 위해 기 약정한 모든 사업 지원금 지급을 이행할 것

■ 코로나-19 영향 평가(Measur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국가	주요 내용
호주	호주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 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들과 협력장기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실무 그룹을 소집할 계획
칠레	칠레 문화·예술·유산부는 문화 기관 및 단체들의 고용 여건과 경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 협의를 출범
체코 공화국	체코문화예술위원회는 보건부 긴급 조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하 기관, 전문 단체, 독립 예술 분야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 및 온라인 공개 시행
아일랜드	아일랜드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보완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
파라과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 기관, 조합 대표자 명단을 문화부에 신속히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싱가포르	싱가포르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는 코로나 19가 행사 취소, 임금 삭감, 추가 경비 발생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데이터 및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문화예술분야 참여(Sector Engagement)

국가	주요 내용
호주	호주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 창작가, 단체들을 위한 주간 회의를 개최. 또 예술부와 협력하여 주간 지원 워크숍을 주요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개최 및



국가	주요 내용
	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또 라이브스트리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발표 또는 재현하기 위한 기술, 스킬, 통신 수단 등이 없는 개인 작가 및 중소형 단체들을 위한 디지털 지원 솔루션의 첫 단계로 Facebook Group Arts and creative industry: digital support를 출범
싱가포르	싱가포르문화예술위원회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는 Arts Resource Hub (ARH) Drop-In Chats를 운영 중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술가들은 위원회 국장(시각 예술)과 40분간 채팅을 할 수 있음
스페인	문화·스포츠부는 일련의 라운드테이블을 요청하며 현 위기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분야 재건을 위한 제안을 촉구
미국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전국의 예술가 및 예술 단체를 위한 구호 지원 프로그램과 연락처, 센터 목록을 작성함